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조동호 지음

서진출판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조 동 호 지음

서 진 출 판 사

---

---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DONG HO CHO

Seojin Press, 1994

## 머 리 말

열대야 현상이 몇 주간씩 계속된 무더운 여름이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탁상용 선풍기 한 대 놓고 더위와 싸우며, 깊은 밤까지 불을 밝혔다. 무엇 때문이 였는가? 왜 우리는 귀중한 시간과 재정의 손실을 감수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열악한 여건과 불리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수하려 하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다. 현명한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다. 현명한 사람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보화(寶貨)를 담은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이다.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의 보화가 담겨 있다. 일찍이 환원(還元)의 기수(旗手)들은 이 보화를 구하는 일과 담아 지니는 일에 온 몸을 던져 성서적인 교회와 신앙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신약성서로 환원하자는 운동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찾았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일치하자는 운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질그릇을 빚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질그릇 속에 구원의 기쁜 소식인 천국의 보화를 담았다.

우리는 그들의 비법(秘法), 즉 환원운동가들의 정신과 전통을 전달 받았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χρόνος)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정신과 전통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피와 땀을 쏟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원운동가들의 문서(文書)와 정신(精神)과 신학(神學)의 일부를 이 작은 책자에 담아 보았다. 환원운동의 출발 신호탄이 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제2장), 『선언과 제언』(제3장),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루넬버그

서신」(제4장)을 담았고, 환원운동의 정의, 출범, 실천, 쟁점 등을 설명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운동」(제1장), 성례의 성서적인 회복을 주장한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제5장) 그리고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제6장)을 이 책의 내용으로 담았다.

문화의 차이, 감각의 차이, 시대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것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작은 책자가 천국의 보화를 담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의 수고는 값진 것이며, 우리 모두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환원의 기수들의 사랑과 정열과 헌신이 이 땅에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 넘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1994년 8월 12일  
대전에서 조동호

# 차 례

## 머리말

### 1.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운동/7

들어가는 말 .....	7
환원운동에 대한 정의 .....	7
환원운동의 출범 .....	9
환원운동의 실천 .....	12
환원운동의 쟁점 .....	19
맺는 말 .....	35
참고서적 .....	36

### 2.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39

본문 .....	39
증인들의 해명서 .....	42
해설 .....	44
참고서적 .....	51

### 3. 선언과 제언/53

선언 .....	53
제언 .....	56
해설 .....	85
참고서적 .....	92

### 4. 루벤버그 서신/93

들어가는 말 .....	93
본문 .....	95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	95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	101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	104

### 5.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119

들어가는 말 .....	119
침례의 대상(유아세례에 대한 견해) .....	122
침례의 방법 .....	129
침례의 목적 .....	131
끝맺는 말 .....	139
참고서적 .....	144

### 6.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147

들어가는 말 .....	147
성서적인 측면 .....	149
역사적인 측면 .....	150
신학적인 측면 .....	161
한국 개신교의 성만찬 예배 이해와 실제 .....	165
끝맺는 말 .....	169
참고서적 .....	173

# 1.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운동

글: 조동호

##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신약성서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며 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환원운동이라고 부른다. 이 환원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바 목적이다.

이 운동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소개 된지도 반 세기를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운동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원운동을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 특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으로만 알고 있다. 환원(還元)이란 말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환원운동이 성서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면, 마르틴 루터(Martin Luter)나 요한 칼뱅(John Calvin), 또는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종교개혁운동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환원운동과 중세기 종교개혁운동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이 글은 이 점을 밝히는데 있다. 환원운동이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환원운동의 발상지인 미국의 환원운동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환원운동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중을 위한, 회중에 의한, 회중의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일치와 성서의 권위 회복과 회중주의를 표방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를 실천한다. 이 표어를 주제로 일치운동을 전개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를 실천한다. 이 표어를 주제로 성서의 권위회복과 초대(신약)교회로의 환원운동을 펼친다.

이러한 운동은 원상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관점에서 정의 내려 질 수 있다.

먼저 환원운동은 개혁이나 혁명, 또는 혁신과는 성격이 다른 원상회복운동이다. 이 운동은 첫째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요, 둘째가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요, 셋째가 회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교회정치 운동이다.

환원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지상에 세워졌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점차 그 완성을 향해서 한 거름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anticipation),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삶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속에서 개개인이 누리는 행복한 삶과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화목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합된 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당겨져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일치운동과 성서의 권위회복운동 그리고 교회정치의 회중주의 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일치된 명칭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위에 앞당겨 끌어들이는 운동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헌법은 오직 성서뿐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조직체이기를 거부하고 교회일치와 성서의 권

위회복에 힘쓰는 일종의 운동이기를 원한다.

환원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사도들이 지향했던 교회와 인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아래서 하나 되는 운동이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운동이다.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기에 개혁(reformation)이나 혁명(revolution)이나 혁신(renovation)이 형편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환원(restoration)이다.

중세 가톨릭교회가 인위적인 교리와 행실로 성서에서 몹시 이탈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나타나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던 그 운동의 연장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이다.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될 수 없는 지속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자체가 교회를 찢는 운동이었기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의 모습은 아집과 교파주의에 치우친 분열과 분쟁의 연속이었다. 종교개혁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 운동이 환원운동이다. 따라서 환원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서에 돌아가는 운동이요, 성서에서 만나는 운동이다. 성서가 말하는 바를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바를 침묵함으로써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운동이다. 성서에서 만나 하나 되는 운동, 이 운동은 비단 교회의 일치에만 국한되는 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운동,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되는 운동, 인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운동,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운동,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는 운동까지 포괄하는 운동이다.

## 환원운동의 출범

이 운동이 시작된 곳은 미국 동부지역이다. 환원운동은 두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이 비슷한 시대에 발표한 두 개의 중요한 문서에

의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먼저, 1804년 6월 28일, 발톤 스톤(Barton W. Stone) 목사가 중심이 된 미국 오하이오와 켄터키주 접경지역에 퍼져 있던 15개의 교회들로 구성된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해체를 선포하는 유언서를 낭독했다. 이들 15개의 교회들은 모두 부흥운동을 전개하던 교회들이었다. 1800년 당시 남한보다도 조금 더 넓은 켄터키 주의 인구는 221,000명이었다. 이 중에 단지 10,000명만이 교인 이었다. 불과 4%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였다. 이러한 때에 이들 교회들은 체험 중심의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들 교회들은 냉랭하고 인위적이며 율법주의적인 당시의 장로교회 조직으로부터 탈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성서에 충실하며 민주주의적인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은 장로회 조직 9개월만에 해체를 선언하였다. 그 해체 성명서의 타이틀이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sup>1)</sup>라는 것이다. 이 유언서 첫 조항에서 이들은 말하기를, “본 장로회는 죽고, 해체되어, 넓은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침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몸,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조항들에서는 “한 주님만이 계시므로 목사에 대한 높임 칭호인 Reverend를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성서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 할 법령이나 위임된 권위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을 영원히 멈춘다”고 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는 말하기를,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열심 있는 기도로 성서를 연구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으로서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기

---

1).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유언서는 목회자의 선택이나 책임은 물론 교회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회중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일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성서 한 권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피차 관용의 정신을 키우고, 기도에 힘쓰며, 분쟁을 줄이고, 시대의 징조를 살피 구속의 날을 고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환원운동은 또한 1809년 9월 7일 발표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에서 비롯되었다.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1763-1854)이 초안하여 재정부장이었던 토마스 아체슨과 공동명으로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56쪽의 소책자이다.

이 책자에서 강조된 내용은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 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일치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치를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헌장이다.

『선언과 제언』이 빛을 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토마스 캠벨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809년 8월 17일 버팔로에서 모였을 때에, 참석자들이 각기 다른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부분 확정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지명한 신앙 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에 선포 이후의 목적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후 전원합의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복음사역자인 토마스 캠벨의 도움으로, 그들 협의회의 중대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21명을 지명하여 함께 모여 협의토록 하였다. 협의의 결과로 『선언과 제언』이 빛을 보게 되었고, 협의회의

비용으로 협의회를 위해서 1809년 9월 7일 이 문서를 출판하기로 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발톤 스톤 목사가 작성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나 토마스 캠벨 목사가 작성한 『선언과 제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한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가장 초기의 문서들로서 이들 문서에 나타난 사상은 한 마디로 교회의 일치와 성서의 권위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또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한 개교회 중심의 회중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성서를 교회의 헌법으로 삼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할 것을 다짐한다.

## 환원운동의 실천

이런 중요한 환원운동을 전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가 말하는 이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은 성서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롬 16:16),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마 16:16), 그 분을 생명의 구세주로 자신의 중심에 모신 사람을 말한다(롬 8:9).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됨

---

2). Thomas Campbell and Thomas Acheson,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p. 90.

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롬 8:1). 성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롬 8:9).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27).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0 0 0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다(롬 16:16). 그리고 오직 이 명칭 아래서 만이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통일된 국가나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 여러 개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칭은 하나이어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혹은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배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서의 신조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 신조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예수의 신성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고백이 나타나 있다. 성서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이 신앙을 고백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서 해석적인 결론에 의한 장문의 신앙고백서나 특정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리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이다(딤후 4:1,6; 유 3; 갈 1:23). 교리는 사람에 따라 혹은 지식이나 지혜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 순종과 확신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성서가 증명한다. 이를 순종의 믿음이라고 성서는 말한다(롬 1:5; 16:26; 약 2:14-26). 믿음에는 구원하는 믿음과 순종의 믿음 그리고 교리로서의 믿음 이외에도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음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고전 12:9; 13:2).

셋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서의 회심을 실천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회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례전으로 믿고 행하고 있다. 그리고 침례와 성만찬의 초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침례의 성서적인 원형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침수이며, 그 대상은 복음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신자이다. 그리고 침례의 목적이나 의미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함이다. 침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의 세례이해는 유아세례의 성례전적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한신대의 박근원 교수는 『기독교사상』 1991년 8월호에 실린 그의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라는 글에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유아세례야말로 서방교회 전통이 만들어 낸 최대의 과오라고 지적한 바 있고, 에밀 부르너와 위르겐 몰트만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그는 유아세례 제도가 말로 서방 기독교가 몰락하는 주요원인이며, 누수의 진원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런 서구교회의 모순이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교회의 누수현상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3)</sup>

구원과 침례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4대 요소를 살펴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침례를 구원의 시간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침례식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남 녀가 혼례식을 거행하는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출

---

3). 박근원,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 『기독교 사상』 (1991년 8월호, 통권 392호), 176-177쪽.

산의 개념은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식의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새 생명이 산모의 몸에서 10여 개월 성장해 온 점이나 혼례 전에 남녀가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고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때는 출산의 때요, 사랑하는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간도 혼례 때인 것처럼 성화의 차원에서 중생의 거듭남과 죄씻음은 물론 칭의의 차원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공식적인 시간은 침례 때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디도서 3장 5-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침례 안에서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친히 흘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서 이 때에 주시고, 의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부패한 상처를 싸매시는 대 수술을 감행하심으로서 옛 사람을 물 속에 장사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재생시키신다. 물론 이 수술작업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총이요, 조건은 신자의 믿음이다. 따라서 침례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침례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다.

『리마문서』<sup>4)</sup>에서도 침례의 중요성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예수의 요단강에서의 침례는 죄인과의 연대(in solidarity with sinners)속에서 회개와 사죄의 표시로 시작되었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사죄와 구원의 채널로서의 침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표지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

4). Faith and Order(WCC),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No. 111(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s.v. "Eucharist."

스도의 몸애로의 편입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맺어진 새 계약애로의 유입을 뜻한다. 따라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한 자는 사죄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과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됨을 뜻한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할 자로 보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침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이며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자는 항상 종말의 완성을 향해 변혁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윤리적 의지(a new ethical orientation)를 부여받는다. 이 새로운 윤리적 의지는 순간적인 경험으로서 끊이지 않고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할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며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는 여기와 현재에 공동책임을 가지며, 인류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 한다. 이 공동증거의 현장은 교회요 세상이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도 상호간의 결속과 일치로 도모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침례를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환원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미 2천 년 전에 출범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다.

넷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서의 예배의식을 준행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 속에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말씀과 교제와 성만찬과 기도(찬양)가 이들이다. 한 때 가톨릭교회는 말씀이 빠진 성만찬 중심의 미사를 드러왔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개신교회는 성만찬이 없

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서 절름발이 예배를 드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톨릭교회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성만찬이 있는 예배로 회복해 가고 있고, 개신교회도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매주 성만찬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난 200여 년 동안 주장해 왔고 실천해 왔던 말씀과 성만찬 중심의 균형 있는 예배가 참 예배의 모습 이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한 좋은 예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례이다(고전 11:23-25; 마 26:26-29; 막 14:22-25; 눅 22:14-15). 성만찬의 뿌리는 최후의 만찬에서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와 부활 후에 민중들과 함께 나누신 나눔의 식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리마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성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이며(Eucharistia),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며(Anamnesis), 성령의 임재를 비는 제사이며(Epiklesis),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대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는 교제의 시간이다(Koinonia). 성만찬은 대신, 대인, 대물관계에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된 화해와 나눔의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이다(Anticipation).

“리마문서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독교사상』 1991년 11월 호에 실린 글에서 한신대의 박종화 교수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고백적 행위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의 몸예 동참하는 기념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경험임과 동시에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 구원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선취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취와 현재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을 포괄하는 구원의 체험인 동시에 온갖 불의, 인종차별, 분열, 부자유 등으로부터 참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맛볼 수 있

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현재화시키는 일이며,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면서 이들과 연대하는 밥상공동체를 세우심으로서 종말론적 식탁공동체를 선취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와 연대하고 동일화시키는 일이다.<sup>5)</sup>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만찬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환원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누린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서의 명령을 준행한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성령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권능이 부여된 신성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제하며, 흠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막 16:15; 행 8:4). 이 복음은 전도자와 개개인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며, 어느 장소에서나 이루어진다(행 20:20; 5:42; 11:12-15). 둘째, 제자를 삼는 것이다(마 28:19). 제자 양육은 남녀노소 불신자들에게 접촉하여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신앙인으로 또는 전도자로 육성하는 일이다. 셋째, 침례를 베푸는 일이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서 입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푸는 성례이다(마 28:19). 넷째,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행 5:20; 마 28:20). 이는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결의 생활을

---

5). 박종화, “리마문서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 사상』 (1991년 11월호, 통권 395호), 62-65쪽.

위한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환원운동의 쟁점

미국의 환원운동은 지난 2세기동안 신약교회의 표준과 규범에 대한 증인으로서 존재해 왔다. 하나의 운동으로서 환원운동은 신앙양심을 엮어매는 신학체계나 신앙고백서, 교파적 교권, 또는 인위적인 전통을 배격해 왔으며, 알렉산더 캠벨이나 발톤 스톤과 같은 환원운동가들의 전통과 특성을 유지하며, 받들어 왔다. 이 전통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이다.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악기, 제자 교회, 유악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세는 다음과 같다.

1987년 통계에 따르면, 전 미국과 캐나다에 유악기 교회가 5,756개에 110만 성도, 무악기 교회가 13,485개에 128만 성도, 제자 교회가 4,330개에 115만 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를 합하면 대략 23,571개 이상의 교회에 353만 이상의 성도가 되지만, 환원운동은 원래 또 하나의 교단을 시작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sup>6)</sup>

본질적으로 환원운동은 개신교적 성격도 가톨릭교회적 성격도 띠지 않았다. 개신교적이라 함은 분파적인 성격을 의미하고, 가톨릭교회적이라 함은 비 성서적인 성격을 들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는 다분히 개신교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구조와 제도적 사고는 당시의 개신교주의와 전혀 같지 않았다.

한편 환원운동은 가톨릭교회가 우주적인(catholic)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가톨릭적이었다. 동서교회의 분단과 종교개혁이전까지는 원

6). Philip L. Young,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1987,"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pril 24, 1988), p. 4; "The Strength of Religious Bo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June 6, 1982), p. 6.

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일 교회였고 우주교회였다. 이런 의미에서 분단이후의 가톨릭교회를 우주교회와 구분키 위해서 가톨릭교회 앞에 로마(서방)를 붙여 Roman Catholic Church라 부른다. 가톨릭교회는 환원운동가들에게 우주적인 교회로 믿어지기보다는 교권적 오만과 자칭 종교적 전통을 주장하는 사이비 교단으로 보아졌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알렉산더 캠벨은 1836년 가톨릭교회의 감독 퍼셀(John Purcell)과 1820년 장로교 목사인 워커(John Walker)씨와 그리고 1823년 역시 장로교 목사인 맥칼라(W. L. McCalla)씨와 공개 토론을 가졌으며, 그들을 공박함으로서 성서적인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추구하였다.

환원운동의 핵심논쟁을 이해하려면, 교회일치와 성서적 권위회복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환원운동은 종교개혁가들이 파괴한 우주적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치 운동이며,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환원운동을 지난 200년 동안 지속시켜 온 추진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원칙의 맥락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 있게 이어 가느냐에 있다. 교회일치 쪽이 밀리면, 율법주의적이고, 분파적인 성향을 띄게 되고, 성서의 권위 쪽이 밀리면, 교리적 상대성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서의 권위에만 치중하고 연합을 소홀히 하는 탓으로 미국의 무악기 교회 형제들이 다분히 분파적이며 율법주의적이다.<sup>7)</sup> 또한 제자 교회 형제들은 연합에 치중하고 성

---

7). 1966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무악기 교회는 30여개 이상의 분파로 갈라져 있으며, 텍사스의 아빌레네(Abilene)에서만도 6개파가 서로 공박을 일삼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30개 이상 되는 그룹들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1960년에 16,500개의 교회에 2백만 이상의 성도를 보유하였던 교회가 필립 영의 1987년 통계 자료에서는 13,485개 교회에 130만 성도로 감소되었다. R. J. Kidwell,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The Seminary Review*(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ummer 1966); James D.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p. 309.

서의 권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진보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다.<sup>8)</sup> 그러므로 환원운동의 핵심논쟁은 바로 이 두 가지 교회일치와 성서의 권위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sup>9)</sup> 유약기 교회도 성서만이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길잡이이며 교회일치의 시금석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으며, 성서의 권위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교회 일치에 다소 소홀히 하는 편이다.

이 두 원칙에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환원운동가들은 세 가지 표준을 세웠는데, 그것들은 통일, 자유,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본질적인 것은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로 하되, 본질적인 것이든지, 비본질적인 것이든 지간에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무약기 교회 형제들은 비본질적인 요소인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으로 믿어 본질적인 문제로 쟁점화 시켰고, 회중예배 때의 교회에서의 악기사용, 급료목회자, 성가대, 교회 공동체 사이의 협동, 교회 밖의 기구 구성문제(예: 선교부, 성서공회 등)등을 문제 삼음으로서 환원운동 100여년만인 1906년에 갈라서게 되었다.

제자 교회 형제들은 1900년대 초 자유신학의 물결에 합류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였고, 성서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진리의 통일보다는 상호이해와 협력을 기치로 연합운동을 전개하면서 결국 중도 그룹인 유약기 교회에서 갈라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분단을 자초하고 일치를 훼방하는 주된 독소는 신학자료 권위문제와 성서해석학상의 차이에 있음을 보게 된다. 신학자료 권위문제는 유약기 교회나 무약기 교회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절대

8). 제자과 교회도 필립 영의 1982년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0년간 916명의 교인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역시 필립 영의 1987년 통계자료와 대조해 볼 때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James B. North, "The Current Challenge to the Restoration Movement," *The Seminary Review*(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eptember 1986), pp. 105-122.

진리로 믿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유악기 교회 형제들은 초대 환원 운동가들의 표어인 성서의 절대권에 통일을, 문화권에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임한다는 교회일치 사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나, 무악기 교회 형제들은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 즉 신약성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강한 보수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에 치우치면 칠수록 교회일치는 멀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금지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락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인의 신앙양심에 맡겨 본질적인 문제로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교회 일치에 매우 중요하다.

진보노선을 취한 제자 교회 형제들은 성서보다는 인간의 이성에서 더 많은 권위의 비중을 두게 되었고, 절대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진리의 상대성의 인정은 곧 모든 사람이 교리에 관계없이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친교의 문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약해져 가고 있다.

한편 신학자료 문제에 통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해석학상의 원칙이 통일되지 않는 한 교리나 성서해석에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신학자료의 권위문제와 성서해석학상의 문제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신학방법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악기와 무악기는 성서 하나만을 믿음과 실천, 즉 신학과 윤리의 유일한 책으로 고집 하는 반면, 제자파는 성서뿐만 아니라, 신학체계, 인간의 이성, 문화, 경험, 감정 등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의 제반 문제점을 잠시 언급하고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훈련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신앙인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앙을 위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이론적인 학문이며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촉구하는 행동지침이다.

신학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신학교의 전 과정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대학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성서원어, 성서주석, 교회역사, 고고학, 성서교리, 변증학,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설교학, 선교학 등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 걸쳐서 교과과정을 짜고 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과목들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구별하게 된다. 이들 분야를 성서(주석)신학, 역사신학, 조직(이론)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이라고 부른다.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더욱 분명하게 이들 네 분야로 구분되며, 전공도 이들 네 분야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게 된다.

성서신학이란 주석신학으로서 신구약 성서를 기록 당시의 원어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성서 해석학, 성서 정경사, 고고학, 역사적 배경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역사신학에서는 교회를 다루게 되는데, 사건 사고의 발생과 내용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되므로 역사에 자신이 없더라도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조직신학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므로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한다. 실천신학은 여러 가지 분야의 전공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교회성장학 분야, 선교학 분야, 기독교교육 분야, 교회음악 분야, 상담학 분야, 목회학 분야 등 다양하다. 아무튼 넓은 의미에서의 신학이란 앞서 열거한 모든 신학적 학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둘째, 조금 좁은 의미로서 신학이란 말은 전공분야로서의 신학 즉 조직신학을 두고 말하기도 한다. 조직신학은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에 대등한 말로서 교리학, 조직신학, 교리역사, 변증학, 종교철학, 윤리학 등을 다루게 된다.

셋째,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신학이란 말은 조직신학 또는 교리학을 두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보통 변증학 및 윤리학 분야와 함께 조직신학부의 삼개 전공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학이란 말은 신학이란 말이 담고 있는 하나님(theos)과

학문(logos)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의 원뜻인 신론을 두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론을 흔히 영어로 theology proper(신학 원뜻)라고 부른다. 이는 다른 많은 신학의 뜻과 신론을 구분코자 함이다. 신학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제 조직신학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조직신학은 성서를 절이나 권별로 연구하기보다는 주제별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성서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죄론 같은 특별한 주제를 체계 있게 연구하는 신학방법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조직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의 위치(loci)를 차지해 온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들 주제들은 성서론,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교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직신학을 성서신학 혹은 교의학이라고 명하기도 한다.

이들 성서신학과 교의학은 때에 따라서는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때 성서신학은 성서의 특정부분 즉 구약신학 또는 바울서신 신학 등과 같은 연구를 말하며, 교의학은 성서이외에도 교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천명된 신앙고백서들을 연구에 포함시킨다.

조직신학의 성공적인 시도는 반드시 성서의 통일성과 성서의 명백성이란 원칙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모든 성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그리고 성서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스타일, 어휘, 배경, 강조점들이 그들의 저술에 철저히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통일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성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전개된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한 믿음의 글 또는 신앙을 통한 삶의 고백으로 보는 경우에는 성서를 쓴 저자들이 역사나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기보다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전한다고 보게 되며, 성서를 해석된 역사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전달한 역사로 보게 된다. 따라서 성서는 저자들의 자료수집, 선별, 해석, 편집의 결과이며, 수집된 자료들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선교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저자별 신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 저자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삶의 자리, 저자가 속한 신앙공동체의 제 문제들, 그리고 저자의 신학적 관점과 기록 목적의 차이 등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성서 66권을 모두 넣고 녹여서 죄론 따로 뽑아내고, 인간론 따로 뽑아내는 식의 조직신학을 거부하고 저자의 신학적 관점과 기록 목적에 관심을 두고 마태신학, 마가신학, 누가신학, 요한신학, 바울신학 등으로 세분하여 저자별로 연구하는 성서신학을 선호한다.

이들 주제별 조직신학과 책별 또는 저자별 성서신학은 서로 적대 관계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이다. 특히 성서신학은 조직신학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성서가 수많은 저자들과 수세기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신학적 관점에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들 이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증거 하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의 언어로 된 체험적 신앙고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대에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쓴 작가 자신의 말을 듣는 것과 같으며, 또 관현악 연주에서 여러 연주자들의 각기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듣게 되지만, 결국 작곡자 자신이 의도한 한가지 주제 음악을 듣게 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성서를 기록한 여러 저자들의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보게 되며, 그 구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

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학체계와 조직신학은 다르다. 조직신학은 성서연구의 한 방법이며, 신학체계는 조직신학의 산물 즉 교리(dogma)라고 할 수 있다. 조직신학의 모든 노력이 신학체계를 위한 것도 아니며, 그럴 의도도 대개는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설교가가 주제설교를 쓴다든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성서 강의록을 쓸 때에 그는 조직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학체계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성서보다는 인간들이 세운 불완전한 체계에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수용할 수 없게 만든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 정통의 시비를 가리는 울타리 역할을 삼아 왔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울타리가 크면 큰 만큼 교리는 상대적이 되지만 교회연합이 쉽고, 울타리가 좁으면 좁은 만큼 교리는 절대적이 되어 교회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관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신학체계의 위험은 잘못된 출발점, 잘못된 성서 해석학적 원칙을 적용하여 내린 거짓된 해석에 인간을 묶기도 하고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데 있다. 또 다른 신학체계의 위험은 이 잘못된 해석의 내용을 성서주석이나 신학작업의 울타리로 삼아 칼뱅주의, 아르미니안주의, 가톨릭교회주의, 웨슬리안주의 등으로 이즘화 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주장이나 주의가 해석하는 사람의 지혜, 지식, 경험, 관심, 관점(가치관)의 차이에서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에 권위를 부여하는 문제, 자료를 해석하는 원칙의 차이, 신학 하는 방법의 차이는 필경 각기 다른 해석을 낳게 할 것이다.<sup>10)</sup>

자료의 권위 부여 문제는 교단 분열과 교리의 비통일성의 주된

주범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성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란 사실을 인정하여 성서의 통일성과 분명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서를 신앙인들의 믿음의 글 또는 삶의 고백, 또는 해석된 역사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전달한 역사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성서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오직 성서만을 믿음과 실천 혹은 신학과 윤리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 한편, 종교개혁이후의 교리와 전통을 보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후자는 성서의 상대성을 인정하며, 성서이외에도 인간의 이성과 시대적 상황을 중시하여 교리와 전통을 보수하기보다는 시대성에 맞는 상황신학에 관심을 갖는다.

가톨릭교회는 성서이외에도 교회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밖에 사이비 교단에서는 성서이외에 몰몬경이나 원리강론 또는 대쟁투와 같은 책들에 성서 이상의 권위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자료에 부여하는 권위에 따라 신학과 윤리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성서이외에 다른 것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료의 권위문제에만 신학의 분열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성서 해석학의 문제 또한 심각한 주범이다. 해석학적으로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삶의 정황을 철저히 살피고 저자의 기록 의도나 목적을 고려한 다음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는 해석과 주석을 내려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救贖史)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역사적-비평적 방법을 적용하여 성서를 풀이하는 방법도 있다. 구속사적 해석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기독교론적 맥락에서 신구약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역사적-비평적 방법은 역사비평 방법을 성서에 적용하여 본문, 자료, 언어, 구전양식, 문학양식, 편집내용, 주변 종교의 영향 등을 비평한다. 이밖에도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황을 살피는 사회

10). Cottrell, Jack. "Theology and the Church."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February 7, 1982).

학적 성서비평 방법이 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는 여성신학이 사회학적 성서비평 방법에 의한 신학이다.

성서의 기록된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서신학의 방향이나 목적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신학을 연역적으로 풀어 가면서 주로 개인의 영혼구원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는 신학을 귀납적으로 풀어 가면서 주로 사회구원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복음주의)의 경우에는 신과 인간을 수직선상에 놓고 신본위 신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고, 후자(자유 진보)의 경우에는 인간 대 인간을 수평선상에 놓고人为本위 신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자의 경우는 교회의 사명인 봉사와 구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인간화 또는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수평신학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예배, 선교, 교육을 통한 인간의 영혼구원을 추구하는 수직신학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의 근본 목적이 전인구원에 있고, 인간의 구성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도 영혼구원은 물론 육체구원(부활), 더 나아가서는 우주회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신학방법론은 사실상 상호 보완적이며, 협조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절대성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연역적 신학방법을 사용할 때는 결국 상대성을 살펴야 하는 것이며, 상대성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귀납적 신학방법을 사용할 때는 결국 절대성에 귀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사이의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이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다른 이는 전천년설 또는 시대구분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만을 고집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많다. 성서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다.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이면 문자적으로, 영적이면 영적으로, 비유적이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획일적인 방법의 적용은 언제나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구원의 본질이 아닌 천년설과 같은 문제는 인위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학적인 해석 또는 견해를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분열을 획책할 때이다. 그러므로 학자간에 통일된 신학자료의 권위부여, 통일된 성서해석 원칙들에 합의를 이루는 일이 남겨진 과제이다.

그러므로 환원운동의 성공은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원운동이 제자 교회 형제들에게는 교회보다는 교제의 개념으로 비쳐지고 있고, 유약기나 무약기 교회 형제들에게는 교제보다는 교회라는 개념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초기 환원운동가들은 교회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의사는 전혀 없었다. 1804년 6월 28일 발톤 스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산하면서까지 연합운동에 기치를 들었고, 단지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기를 원하였다.

알렉산더 캠벨도 만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가 성서해석학상 그와 뜻을 같이했거나,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장로교인이거나 침례교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이 장로교회를 떠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1809년 8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워싱턴군에 그리스도인 협회를 세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교회를 세웠을 때는 토마스 캠벨에게 이날은 정말 가슴 아픈 날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연합운동의 꿈이 깨어지는 듯싶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교회를 갖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의 많은 부분이 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우리는 파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 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 왔다”고 하였다.<sup>11)</sup> 이는 협회가 교회로서

11). Alexander Campbell, *The Lunenburg Letter with Attendant Comments* (Nashville: Th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55); Bruce R. Parmenter,

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서 연합에 대한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의 강한 정열과 함께 알렉산더 캠벨의 분파적 성격도 함께 띄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현실이나 오늘날의 현실로 보더라도 교회 없이 환원운동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알렉산더 캠벨이 어떤 의미에서는 토마스 캠벨보다는 현실적 이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복잡한 성격을 띤 환원운동이 제자 교회와 무악기 교회에 의해서 극우 극좌를 달림으로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환원운동은 교회분열을 뼈아프게 체험한 초대운동가들이 교파교단속에서 일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성서의 권위회복을 부르짖다가 교리적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파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체교회를 세워 성장을 거듭하면서는 교리적 진실성 때문에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논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침례가 바로 이런 질문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질문의 발단은 1837년 6월호 『천년왕국 예고자』지에 알렉산더 캠벨이 「영국에 보내는 서신들」(Letters to England-No.1)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모든 개신교 교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된다”<sup>12)</sup>라고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루넨버그의 한 자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데서 발생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교파교단의 기독교인들을 “경건한 미침수자들”<sup>13)</sup>이라고 칭하는 한편, 개신교 교단에도 분명히

“What Is the Restoration Movement—A Fellowship or a Church?”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pp. 740-74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e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1837),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March 1970, p. 11.

12).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erg Letter,” s.v. “Preface.”

13).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1837), pp. 411-578; “Editorial,”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p. 3.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캠벨은 침수세례를 받은 자와 무지한 상태에서 약식세례를 받은 자와의 차이를 온전한 신체를 가진 자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신체의 일부가 불구인 자로 비교하였다. 다음의 글은 캠벨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의 진실 되고 성서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에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캠벨의 이러한 입장은 교회에 상당한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였고, 온 교회가 달아올랐다. 캠벨 자신도 이 문제에 상당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교계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캠벨주의자(Campbellite) 또는 물중생론자(Water Regenerationist)로 매도되었기 때문이다. 캠벨의 다음과 같은 불평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주 열렬한 이들 형제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중의 모든 사적이고 사회적인 덕행들을 알보면서, 우리가 침례를 구세주로 만든다 든지 혹은 천국 가는 여권으로 만들고 있다는 교계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하였다.<sup>15)</sup>

이런 논쟁의 결과로 나온 표어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14).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erg Letter," p. 3.

15).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erg Letter," p. 10.

but Christians only.)”였다.

20세기 초반부터는 제자 교회가 교파교단의 신자들을 조금도 의심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정하여 교제를 함께 함으로서 이런 논쟁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유약기 교회와 무약기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아집을 굳게 고수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침례를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재해석이 일고 있다. 이는 침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 또는 장소라는 점이다. 알렉산더 캠벨도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약식세례자의 구원의 문제는 복잡한 신학적 성서학적 해석학적 문제점이 얽힌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sup>16)</sup> 약식세례자의 구원의 문제는 「루넨버그 서신」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성찬예식 참여문제도 초대 환원운동가들은 공개성찬도 폐쇄성찬도 주장하지 않은 것 같다. 무약기 교회는 단연 폐쇄 쪽일 수밖에 없고, 제자 교회는 단연 공개성찬일 수밖에 없다. 유약기 교회들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폐쇄 또는 공개성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약기 교회가 폐쇄성찬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제자 교회들이 공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개교회들보다는 대표성을 띤 학자들에게서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멤버십 문제도 그렇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멤버십을 갖는 것이 교파 형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sup>17)</sup> 그러나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멤버십은 천국의 시민권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침례를 받아야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

16).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s*(April 1828), p. 222; *Christian Baptists*(June 1828), pp. 254-255; Jack Cottrell, *His Truth*(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0), pp. 73-75.

17). Bruce R. Parmenter, *op. cit.*

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환원운동의 쟁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치와 성서의 권위 회복을 함께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1828년 야레트 레인즈(Aylette Raines)는 젊은 목회자로서 만인구원설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견해만 가지고 있고 가르치거나 설교는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견해를 동료들이 많이 반박하였으나, 토마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합의 측면에서 그를 옹호하였고, 레인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만인구원설을 포기할 것이나, 그를 반박하면 오히려 더 고수하려 들 것이라고 설득하였는데, 5년 후에 그들의 주장대로 레인즈는 그의 만인 구원설을 버렸고, 교회는 평화와 연합이 지속되었다.

1840년 발톤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 사이에 구속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토론이 있었는데, 스톤이 그리스도의 구속교리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톤이 비록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았고, 캠벨이 침묵함으로써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라는 기치아래 평화와 연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항상 평화와 연합만이 유지된 것은 아니다. 1830년대에 요한 토마스라는 의사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었는데, 강한 전천년설과 함께 단일신 사상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 문제로 캠벨은 그를 두 번에 걸쳐 만나 잠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자기의 견해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자,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형제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테네시 네쉬빌에 젊고 유능한 설교자인 제시 퍼거선(Jesse B. Ferguson)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여 사후 복음을 지지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알렉산더 캠벨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몰아붙였다. 결국 퍼거선은 만인구원설쪽으로 밀리게

18). 역자주: 여호와증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되었고, 결국은 영주의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캠펠이 젊고 유능한 설교가를 몰아냄으로서 평화와 연합은 깨지고 말았다.<sup>19)</sup>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문제로 교단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랫동안 여집사 조차도 인정치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유약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약 10%가 여집사를 두고 있으며, 그 수는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약 1%에 해당하는 교회가 100여명의 여장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약 38%의 교회가 960여명의 여교역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여교역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교역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지난 10여 년간 배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불성실한 판단을 지양하고, 분명한 쟁점을 놓고 성서적으로 그 문제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앞서 열거한 두 사례와 같이 연합과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가능한 연합을 유지하느냐에 있다. 현재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한 문제들은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성서의 무오설, 은사론, 침례, 그리고 연합운동의 참여문제 등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그리스도의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늘날 모든 교단과 교회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한 범교단적 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생각들을 좁히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의 견해를 다

19). James B. North, "Our Father Is Rooted in Our Great Heritage,"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July 21, 1985), pp. 4-5.

20). 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pp. 8-9.

른 사람에게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얽혀 있는 인간관계나 생활연계 문제도 풀기 힘든 매듭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남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서적 가르침에 접근해 가야하며, 결국은 합일점에 도달해야 한다.

## 맺는 말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원운동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가 미국의 환원운동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서의 권위 회복과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지상과제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을 던져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환원운동의 쟁점들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미국 교회의 문제이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아니란 점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장에서 소개된 내용들은 이어지는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제시될 것이다.

## 참고서적

- 박근원.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 『기독교 사상』 통권 392호 (1991년 8월호).
- 박종화. "리마문서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 사상』 통권 395호(1991년 11월호).
- Campbell, Alexander.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e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 1837.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March 1970, p. 3.
- .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1837.
- . *Christian Baptists*. April 1828.
- . *The Lunenberg Letter with Attendant Comments*. Nashville. Th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55.
- Campbell, Thomas and Acheson, Thomas.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p. 90.
- Cottrell, Jack. *His Truth*.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0.
- . "Theology and the Church."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February 7, 1982.
- "Editorial."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 Kidwell, R. J.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The Seminary Review*. 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ummer 1966.
- Murch, James D.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 North, James B. "Our Father Is Rooted in Our Great Heritage."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July 21, 1985.
- . "The Current Challenge to the Restoration Movement." *The Seminary Review*. 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eptember 1986.
- Parmenter, Bruce R. "What Is the Restoration Movement—A Fellowship

- or a Church?"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 Stone, Barton W.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No. 111. Geneva: WCC, 1982.
- Young, Philip L.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1987."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pril 24, 1988.
- . "The Strength of Religious Bo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June 6, 1982.
- Zuber, Glenn M.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 2.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sup>1)</sup>

번역 및 해설: 조동호

### 본문

유언(遺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 성서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매우 건실하고 강성하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온전히 건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표를 파송한 모든 교회들이(all delegated bodies) 단번에 죽기로 지정 받음을 알고, 또 그같은 모든 교회들의 삶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부르본(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 리지(Caneridge)에 모여 아래와 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유언서를 만들어 제정한다.

먼저(imprimis),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will). 오직 한 몸과 한 성령이 있을 뿐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

1).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조항(item). 우리는 구별을 위한 명칭 레버랜드(Reverend)<sup>2)</sup>란 호칭이 잊혀질 것과 하나님의 유산(God's heritage)에는 오직 한 주(Lord)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One)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교회 처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대표로 위임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은 영원히 멈출 것과 사람들은 성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서를 연구할 것과 철학의 혼잡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유언한다(will).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항(item).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치(內治/internal government) 즉 교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가르칠 만한 체험적 신앙과 진지함과 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개개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개교회의 설교자를 선택하며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하며 서명요구나 승낙 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며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인 혹은 다수의 대표에게 교회의 처리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지금부터 사람들은 성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

---

2). 역자주: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존칭임.

고 착실한 안내자로 삼을 것과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책들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만큼,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을 유언한다(will). 한 책을 가지고 생명을 들어가는 것이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조항(item).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임금 삼으려 했으며, 그것이 현재 되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형제들은 만세 반석에게로 가야 할 것과 장래를 위해 예수를 따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켄터키주 노회(Synod of Kentucky)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sup>3)</sup>에서 떠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교인을 조사할 것과 의심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자를 즉각 정직(停職/suspend)시켜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행하며,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최근 렉싱턴(Lexington)에서 발행된 두 문서의 저자인 모씨(Ja--- ---)는 당과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열성 때문에 격려를 받기를 유언한다(will).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매 교단들은 그들이 성서를 조심스럽게 읽으며, 그들이 성서 안에 결정된 그들의 운명을 보게 되며,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준비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인장소(L. S.): 스프링필드 장로회  
1804년 6월 28일

3). 역자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증인(Witnesses):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발톤 스톤(B. W. Stone),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

## 증인들의 해명서(The Witnesses' Address)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이 기구(that body)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 기구가 처음 조직되면서부터 사랑 안에서 피차 결합하였고, 화평과 화합 안에서 지냈으며, 자발적이며 행복한 죽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과 당파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이 장로회란 이름아래 연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배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극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역에서의 그들의 성공에 비례하여 증대되었다. 질투심들이 다른 교파 교단들의 마음속에서 불붙게 되었고, 유혹이 여러 당파들과 연결된 자들 앞에 놓여 동일한 빛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치리의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이란 글을 출판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인위적인 창안들과 군주적인 전통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곧 바로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교회조직들(confederacies), 즉 당회(Church Sessions), 지방노회(Presbyteries), 주노회(Synods), 전국총회(General Assemblies)와 같은 사례나 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입한 조직(connection) 위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한 모퉁이 돌<sup>4)</sup>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교회치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인위적인 조직(a self-constituted body)의 이름과 승낙 아래서 벗어나 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당파의 존재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죽어 가는 죄인들, 예수가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친(the precious cause of Jesus)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from), 그들은 신선한 마음의 관점에서 멀어지는(sink) 소음과 격분의 당파싸움에서 후퇴하여 해체하여 죽기로 기꺼이 합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해체(death)가 세상에 큰 소득이 될 것을 믿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죽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의 범위들 안에 너무 가깝게 붙잡아 둔 그들의 죽을 운명인 틀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고 또 말한다. 그들은 유빌레(jubilee)의 나팔을 불며, 강한 자들(the mighty)에 대항하여 주님의 도움에 자진해서 헌신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도울 것이며, 장로들과 혹은 목사들을 안수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신의 축복을 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며, 함께 교제(commune)하며, 주님의 사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역할(hands)을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속한 저들 기능들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을 계획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

4). 역자주: 우리말 성경에는 corner stone를 ‘머릿돌’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말의 머릿돌과 성경의 모퉁이 돌의 개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로 놓인 거대한 돌로서 사방 모서리에 놓이며 그 돌들을 중심으로 방향과 각도가 결정된다. 어떤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가 4M x 2M가 되는 돌도 있다고 전한다.

편 일들에서는 실수도 범하게 될 것이란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황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며,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분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그분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을 온통 찬양의 도시로 만드시기까지 그분에게 쉬임을 드리지 말자. 우리가 바라기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연합함으로 종결될 우리의 서부 지역(Western country)에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런 사역 속에 그분의 선하심의 펼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연합한다.

## 해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는 미국 켄터키(Kentucky)주(州) 부르본(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리지(Caneridge)에 위치한 발톤 스톤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1804년 6월 28일 지방노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유언서와 해명서를 완성한 것이다. 본 문서는 리차드 맥네마르의 협조아래 주로 발톤 스톤이 작성하였고, 여섯 명의 증인들이 서명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하는 최초의 문서이며,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이 초안하여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유언서 전반부는 12개 이상의 성구<sup>5)</sup>가 인용 또는 부분 사용되고 있어, 본 문서가 성서에 바탕을 둔 유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발톤 스톤은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5). 히 9:16-17; 고전 15:36; 요 12:24; 히 12:26-27; 엡 4:4-6; 롬 8:2; 요 1:32; 히 5:4; 눅 10:2; 계 2:2; 눅 21:28. cf. 마 5: 29-30; 요 6:15.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를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분열과 파당을 멈추고 죽어 해체되어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 조항에서는 존귀를 받아야 할 자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며,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막고, 성령의 법을 여기는 교회법과 교권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을 규범 짓는 유일한 책임을 선포하면서 세속 학문이 성서보다 우위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훈련된 참 일군을 선별하여 파송할 자치권과 그 책임을 회복해야 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후반부 해명서에서는 유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본 문서의 탄생은 적어도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 제임스 오켈리는 발톤 스톤보다 앞서 이미 감리교단에서 교회치리와 목회자 임명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본 문서는 장로교단 안에서 벌어진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위한 선투(善鬪)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몇몇 사람들이 성서해석과 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율타리를 좁게 치는 파당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자유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 하였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인위적인 신조나 교리 혹은 교회법에 얽매임이 없이 성서로 돌아가 성서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성서가 금하는 것을 금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될 때에 교회법

이나 교권에 지배됨이 없이 그리스도와 성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피로 사신 바 그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소속은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된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본 문서를 작성한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은 1772년 12월 24일 미국 남부 머릴랜드 주 찰스 카운티 폴트 토바코에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세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홉살 때에 독립전쟁이 있었다. 발톤 스톤은 재산 분배를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대학교육에 투자했다. 그는 북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멀지 않은 유명한 다윗 콜드웰 아카데미(David Caldwell Academy)에 등록하여 다른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삼년간의 고전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된다. 그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주제로 한 설교보다는 잔잔하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에 감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작성한 유언서에서 품기는 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평화주의와 타고난 실천적 연합의 정신,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그의 깊은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스톤은 29세에 엘리자 캠벨(Eliza Campbell)과 결혼하였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자격증을 따기까지 일 년 동안 스톤은 조지아주 워싱턴에 위치한 수콧트 아카데미(Succoth Academy)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이 학교 교장이었던 호프 홀(Hope Hull)은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의 운동을 지원하는 감리교인 이였다. 여기서 스톤은 홀과 오켈리 운동의 영향을 받고 교권 민주화의 필요성을 수련 받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돌아와 설교 자격증을 받은 스

톤은 목사안수를 받기까지 북 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로 설교여행을 시작했고, 테네시주를 거쳐 켄터키주로 옮겨와 렉싱턴에서 가까운 케인리지와 콘코드 두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supply minister)가 되어 불과 수개월만에 각각 30명, 50명의 새신자를 얻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톤은 그 다음 해인 1798년에 임직 목회자로 초대되었다. 이 후, 목사 안수식 때에,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서에서 가르친 체계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 드리고 채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전체 회중이 들을 수 있는 힘찬 목소리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에 반대가 없어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지 불과 5년 만에 스톤은 이 신앙고백서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성서로 돌아가기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1800년 통계에 의하면, 켄터키 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불과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연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였으며, 종교적인 무감정에 빠져 있었다. 독립전쟁직후 개척지였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욕설, 무도회, 파티, 말 경주, 도박, 음주 등으로 대단히 문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와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켄터키주 일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스톤 자신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비명, 경련, 입신과 같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특히 1801년 8월에 있었던 케인리지 부흥회 때는 참석자가 무려 25,000여명에 이르렀고, 음식이 떨어져 기아상태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설교와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었다.

부흥회의 열이 가라앉자,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지방노회와 주노회의 권위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목사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기존 장로교 신학과 다른 입장을 보인 부흥회 그룹은 그들만의 친교모임을 만들고 강하게 결속하였다. 1810년에는 콴버랜드(Cumberland) 장로교단이 형성되었고, 뉴 라이트(New Lights)도 새로운 장로회들을 조직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서 스톤은 신앙체험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통적인 신조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교회 분열의 최악성을 보았고, 개척지역의 민주적 자유를 함께 나누며, 점차 교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는 비록 부흥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연대했다.

콘코드와 케인 리지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봉직한지 육년만에 스톤은 성도들을 모아 놓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양심적으로 장로교회가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당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금전상의 모든 의무를 면하여 주었다. 그는 회중이 보는 앞에서 사례비 지불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찢어 버렸다. 이와 동시에 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스톤의 동료 목회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서명한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이 이들 가운데 일부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맥네마르의 견해가 워싱턴 장로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였다. 그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에 위배되는 위험하고 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문제가 1803년 9월 7일 렉싱턴에서 열린 켄터기주 노회에 상정되었고, 주노회는 워싱턴 장로회가 맥네마르의 문제에 엄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비난하였다. 투표에서 부흥회측은 반부흥회측의 수적 우세를 꺾지 못하고 지고 말았다. 그러자 부흥회측은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서에 서명한 마샬, 스톤, 둔라비, 맥네마르, 톰프슨은 그들의 글에서 충분하고, 최종적이며, 완결된 권위로서의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헌신과 신앙고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피력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있고 난 후에, 주노회는 1803년 9월 13일, 분리자들이 주노회의 사법

권에서 탈퇴했을 뿐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떠났으며, 교회의 교리와 규범에 환원하기를 거절하고 그들 자신의 장로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서명자들을 정직(停職)할 것을 투표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구성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다. 이들은 1804년 1월에 “켄터키주 노회의 사법권을 포기한데 따른 변호”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마샬이 본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 1부를 썼고, 스톤이 신앙고백서에 담긴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 2부를 썼고, 톰프슨이 인위적 신조의 권위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서를 변호하였다.

독립 기구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단지 9개월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장로교이면서도 기존 장로제도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기구였다. 회원 교회들은 모두가 15개의 장로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 교회 말고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교회들이나 부흥설교가들이 환영받는 비조직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질적으로 어떠한 교권에도 순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한 교회들도 구속(atonement)이나 다른 교리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일치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텅비고 이름뿐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 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조직에서 오직 스톤만이 안정적이고 의존할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스톤은 이 유언서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파당적인 교회명을 버리고, 또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뿐(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라는 정신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s)의 이름아래 교회의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아브너 존스와 엘리야스 스미스(Abner Jones and Elias Smith), 그리고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운동에 함께 연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리교인(Methodist), 장로교인(Presbyterian), 침례교인(Baptist)과 같은 이름은 옳지 않다고 믿었고, 침수세

레가 옳다고 믿는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톤과 함께 유언서에 서명했던 목사들 가운데 맥네 마르와 둔라비는 셰이커(Shakerism)에 넘어갔고, 마샬과 톰프슨은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침수를 주장했던 펄 비안스는 설교가 이지만 본래가 정치가였다. 그는 주의원으로 활약했다.

이상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의 번역과 이 문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임스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쓴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이란 책에 실린 스톤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미 본 문서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스톤이 주장한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토양과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물어 보는 아픔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우리의 생존을 미국식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틀에 맡겨 버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교단의 것들을 따라 가셔도 안 되겠다. 우리 식에 맞는 우리의 것들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자.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신이지,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리도 조직의 틀도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되며, 사랑과 관용의 정신만이 끈끈한 접합체가 된다는 진리이다. 이제로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의 것이니까 안 되고, 우리 것이니까 별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버려야 한다. 남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성서에 비추어 옳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이다. ‘본질에 일치를, 비본질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과 관용을!’

## 참고서적

-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Dickinson, Hoke S., ed. *The Cane Ridge Reader*. Cane Ridge, 1972. 이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다. 『발톤 스톤의 자서전』.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서부지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 Dunnavant, Anthony L.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92.
-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 Stone, Barton W.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 3. 선언과 제언<sup>1)</sup>

번역 및 해설: 조동호

#### 선언

과거 수년간 교계와 특히 이 미주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기독교 세계의 현 상황을 상식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안목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잣대(Divine Standard)로 직접 모든 것을 즉시 측량하며, 이 표준만이 우리 자신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정한 한도임을 인지하며, 이 표준에 의해서만 판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때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형제로부터 판단 받을 수 없고, 형제를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의무 지우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속박 받아야 할 동등한 의무아래 있다고 생각하며, 분명한 법 조문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와 같은 모든 판단은 그리스도의 법을 분명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그분의 특권을 찬탈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조심해야 하며, 이런 성격의 일들을 멀리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

---

1). Thomas Campbell and Thomas Acheson,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같은 잘못을 해서도 안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들로 더불어 기뻐해서도 안된다. 또한 우리는 비통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변진 신앙논쟁의 해독성과 해악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심한 파당분쟁과 다툼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이 싸움이 멈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교회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온 교회에 일치와 화목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법안들을 추천하여 채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파당분쟁들의 견해차이와 증오심, 인간 견해들의 변질되기 쉬운 불확실성과 잡음이 계속 일고 있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단순한 말씀에서가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 바람직한 안식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과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희망은 어떠한 권위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위치를 점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견해와 사람의 창안을 배척하고, 더 이상의 투쟁이 없도록 영원히 싸움을 멈추며, 본래의 표준으로 돌아가 그것을 튼튼하게 잡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으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의 스승과 인도자로 삼으며,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한 사람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우리는 워싱턴군(郡) 그리스도인 협의회(Christian Association)란 명칭아래 신앙적인 협의회를 결성한다. 이 조직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한 복음적 기독교를 장려하고 인간의 견해와 사람의 창안으로 혼합되어 버린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있다.

II. 각 회원은 능력에 따라 즐겁고 자유롭게 순수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성경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에 일정액을 정하여 육개월마다 헌납해 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드러나고 분부된 교리와 예배와 징계와 처리의 모든 형태대로 환원하여 실행해야 한다.

Ⅲ. 이 협의회(Society)는 유사한 형태의 다른 협의회들을 조직하도록 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바람직하고 중요하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락을 취하여 모든 가능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Ⅳ. 이 협의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단(a Church)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협의회에 필요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행사해서는 안되며, 같은 맥락에서 회원들도 그들 스스로를 권한 있는 자로 혹은 교회 협의회들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대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결코 안되며, 단지 교회 개혁을 자진해서 주창하는 자들로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들의 시간과 자문과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어떤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한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Ⅴ. 단순한 복음적 기독교를 장려할 목적만으로 결성된 이 협의회는 대화와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열성과 근면에 있어서 본래의 표준에 명백히 부합하고, 성경대로 기독교 본래의 단순한 형태대로 실천하며, 인간의 권위와 사건, 혹은 사람의 창안,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의무의 문제 등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헌법이나 신앙고백서, 혹은 예배 어느 곳에라도 삽입하려 들지 않는 목회자들에 한해서 힘닿는 대로 장려하고 후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한 말로든지 승인된 전례(前例)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Ⅵ. 협의회는 이익을 감독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회계를 포함해서 도덕적 성품이 훌륭한 21명의 상임위원회가 매년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위원회는 협의회가 앞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든 지간에 협의회들의 모든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 그들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돌발사태의 발생이나 협의회가 미처 결정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술한 위원회에게 특별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VII. 이 협의회는 적어도 일년에 두 차례 5월과 11월의 첫째 목요일에 모인다. 그리고 약정한 기부금의 육개월 치를 수령하도록 지명 받은 위원들은 약정 액을 수령해서 집회 때에나 그전에 회계에게 넘겨서 집회 때에 기금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기 집회는 오는 11월 첫째 목요일에 워싱턴군(郡)에서 개최될 것이다.

VIII. 협의회는 설교로서 개최되어야 하며, 규정(constitution)과 제안(address)을 낭독하고, 협의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은 작성되어 집회 때마다 낭독되어야 한다.

IX. 이 협의회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참 기독교의 신실한 동료들의 아낌없는 후원을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은혜롭게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협의회에 추천에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충분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 항구적인 복음을 단순하게 설교함으로써 순수한 복음적 개혁을 장려하고, 전술한대로, 하나님의 표준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예전(ordinances)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회는 동료들이 상당히 먼 곳에 파송되어 목회 하는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을 후원하고자 기꺼이 무엇을 기부하든 지간에, 이것은 협의회 기금으로 감사히 수용되어져야 하며, 사의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 제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교

회들에게, 존경함으로 다음의 제언을 제출함.

###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며, 인간 상호간에 진실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거대한 계획이요 본래의 목적이라는 점을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탄생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sup>2)</sup>라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외침으로 고지(告知)되었다. 은혜로운 선포들 속에 있는 강요(綱要)들, 훈계들, 예전들 그리고 신성한 표준들이 담지 된 성서의 전반적인 대의(大義)는 매우 분명하고 힘차게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일치와 합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취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촉진되고 보장된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의도를 매우 심각하게 방해했던 서글픈 분열들에 대해서 비탄을 금치 못하며, 서로 물고 뜯으며 신앙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수술하고 제거하려는 우리의 신실하고 겸허한 노력들은 어느 일부분이라도 보류될 수 없고, 이를, 또한, 옳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저 비통한 분열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가! 혐오들, 비난들, 헐담들, 악성 루머들, 분노에 찬 언쟁들, 증오들, 출교들,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일삼지 않는가! 이런 분열이 계속되는 한, 이런 악순환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질 것이 틀림없다. 성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sup>3)</sup>고 말하지 않았는가. 저들 저주받을 분열들의 비참한 결과들이 단면적

2). 역자주: 누가복음 2장 14절.

3). 역자주: 야고보서 3장 16절.

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통치자의 종교적 억압이 없는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조차도 회중들이 쪼개어지고, 먼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교파 싸움으로 혼돈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적인 예전들까지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이 와중에서 미주의 넓은 거주지와 면적들은 오늘날까지도 복음사역의 불모지로 남아 있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이교국가보다 전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교회들은 분열로 인해서 매우 연약해져 저들에게 목회자들을 파송할 수가 없으며, 사람들은 피차 분열되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허락지 않아 감히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이교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축복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치와 사랑의 대성례인 주의 만찬을 거의 배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얼마나 비통하게 이 깨지고 혼돈된 상태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가. 영적인 교제는 악한 현세 속에서 서로 덕을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정이 나누이고, 거리를 두고 살고는 있지만, 같은 의견 혹은 교파의 소수가 편리하게 자주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고 목회적 관심에 따라 기한을 정해 놓고 자주 모일수도 있다. 그리고 정착된 교회들과 같이 여건이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곳에서도 파당심의 영향 때문에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지는가. 교단은 동역자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엄하게 징계도 못하고 있고, 동역자들의 일부는 그럴싸한 구실을 핑계로 다른 교파의 품속으로 보호처를 찾아 떠난다. 듣기는 거북스럽겠지만, 저들 저주스런 분열들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부패해졌고, 비열한 짓이라 생각해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의 위안과 영광과 유익함이 친교의 마땅한 보존에 의존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친교의 성서적 순결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분열로 야기된 무서운 결과를 종식시킬 매우 무섭고 비참한 일이 한가지 남아 있다. 평화의

복음에 대한 이 슬픈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쾌감은 당연히 자극되었고, 주님은 그분의 예전으로부터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임재를 보류하시며, 말썽 많은 자들과 서글픈 추문에 연루되어 신앙적 불협화음을 선동하는 자들을 자주 포기하시며, 엘리의 집에 행하신 것처럼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그들의 힘은 점차 소모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희생물이 된다. 한편 진실한 신앙을 가진 모든 교파들은 이 점에 비판을 금치 못하며, 연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불경한 자들은 굶어지며, 불신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모독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의 영적이고 항구적인 유익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는데 신적인 효능을 가진 하늘아래서는 유일무이한 일과 축복된 예수의 복음까지도 부득이 모멸을 당한다. 한편, 복음사역을 빼앗긴 대중은, 살피본 대로, 쉽게 유혹자들의 밥이 되고, 전대미문의 현혹들에 넘어지고 만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행복했을 이 나라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분열들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아닌가. 자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성서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 악행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가 있는가? 또한 이 책임이 특별한 복음 사역자들의 위치에 서 있고, 이 칭송할 만한 과업의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의 성패는 여러분의 마음을 합한 협력과 열심 있는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이 행복한 나라에서 크고 유익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손에 맡겨 준 호기는 그 자체가 작지 아니한 독려이며,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기독교와 유사한 형태의 이단을 문민이 설립하는 유독(有毒)한 영향에서 다행히 벗어난 나라, 적그리스도의 교권과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나라, 또한 짐승에게 헌신적이어서 힘과 권세를 내어 준 나라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는 나라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들에게 쏟는 날까지 짐승이 활동하는 한 적절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

다. 진실로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들은 복되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고 상당히 많이 주어진 또한 많은 것이 요구될 고귀한 목적들을 위해서 저 큰 이점들을 바르게 평가하고 개선한다면, 우리는 더욱 복될 것이다. 주께서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재산과 자비함으로 풍성하게 공급한 사람들로부터 말씀에 따라 사회적이든 신앙적이든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개혁보다 작은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특권들을 증진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동일하게 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장려할 성질의 대립적인 논의들이 상서로운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의 의무요 경건한 노력들도 주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주님의 복수의 날 즉 시온의 언쟁에 대한 보상의 해가 아닌가? 그러므로 시온을 복되게 할 시기 즉 정한 시기가 확실히 오고 있다. 그리고 환난의 시기에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불란서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전파는 혁명이전의 수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노력들과 수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불란서 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싸움을 제거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인과 형제 상호간의 교제를 회복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의 증진을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이를 입증하는 글들이 많이 출판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온힘으로 협력하여 이 선한 일을 도와 진전시키려는 이들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다면, 해야 할 아직 남은 일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합 후에 이루어지는 선의의 노력들이 어떤 경우에는 모든 교파들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해서 시도조차도 포기해야만 하는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의 가능성도 희박하며, 많은 경우에 충실하고 성실한 노력들이 수반된다 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과 의무의 성스런 규범을 위해서 성실하게 싸우기를 멈추

어야 한다면, 진리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의가 오래 전에 포기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악행들과도 싸워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골리앗 같은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선봉장이 추적을 멈추라고 나팔을 불었으며, 그분의 신비에 쌓인 몸을 산산조각 찢어 놓은 채 그분의 교회 깊숙이에서 칼을 거두고 있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적과 휴전을 선포하셨는가? 내버려두라고 그분이 종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시킬 노력을 중단해야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한편, 우리는 소망했던 성공을 방해했던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들, 곧 눈앞에서 전개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과오를 통해서 얻은 현명한 경험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지시 받지 않는가? 그러므로 경험으로 배우고, 선배들이 남긴 축적된 지식들로 기쁘게 무장하고,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평화의 복음을 예비함으로 신을 신이며, 불굴의 노력으로 이 중요한 의무수행을 위해서 확고히 서자. 시온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기를 잃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자. 왜냐하면, 그 중대한 목적이 우선은 능력 있는 자들이나 다수의 특별한 투표에 의해서 추천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저울질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이미 제안된 것과 관련해서 일의 성격을 의문시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온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온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누구도 그의 동료들보다 특이하고 배타적인 의무에 관해서 상위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권한에 관한 한 이 분야에서 설자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느 누구도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인가에 관해서 책임이 중한 이 과업으로 형제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 편에서는 그와 같은 오만한 생각을 즐겨 하지 않는다. 또한 형제들 중 누구에게도 이 선한 사업이 그들의 부름이나 선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시도를

지원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방된 분야이며, 포괄적인 사업이며,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 목적의 중대함과 그것을 성취하는 길 위에 놓인 여러 겹의 난관들을 보면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런 일들에 합당한가<sup>4)</sup> 라고 사도 요한처럼 즉시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실망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그 일은 물론 우리의 충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 그와 함께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능력 있는 자들과 다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 주님과 진실로 그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우리편에서 있다. 모든 교회들의 기도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기도들(요 17:20,23), 그리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올려 보내진 모든 기도들은 우리와 함께 한다. 시온으로부터의 축복은 우리의 과업 위에 선포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sup>5)</sup> 이와 같은 독려들로 볼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업을 포기시키며, 성취를 위한 시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교회들이 믿음과 실천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좌절시키겠는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자신이 효과적으로 해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본분이라고 판단하며,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힘닿는 대로 모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한 선의의 노력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창하는 대의는 우리가 가진 이상스런 목적이 아니며, 교파와 같이 무슨 파당을 만들자는 목적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편적 대의이며, 그리스도와 모든 교파교회 형제들의 대의이다. 그

4). 역자주: 계시록 5장 2절.

5). 역자주: 시편 122편 6절.

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라고 겸손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형제들과 관련해서 행하는 것이며, 이 축복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처럼 동등하게 속한 각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가 매우 하고 싶고, 것처럼 복된 결과들로 가득한 목적을 성취키 위해서 우리형제들의 의견의 일치를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것처럼 복된 사건 곧 우리의 불행한 분열들을 영구히 끝내고, 초대교회 본래의 일치, 순수, 번영을 교회에 환원하는 사건, 그러나 진심으로 의무에 충실한 그들의 협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것처럼 복된 사건을 기대 할 수 없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조차도, 교회의 조직에 속하고, 교회의 영광을 구성하는 본래의 일치, 평화, 그리고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망스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는, 모델에 잘 들어맞고 신약성서에 명백하게 제시된 초대교회의 실천을 채택할 무슨 대안이 있는가? 어느 한 교회나 혹은 모든 교회에서 이것이 무슨 변경들을 만들어 내든 지간에 수용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간주되어 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신성한 영감으로 된 법규를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변경은 확실히 더 나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가능한 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적 교회와 완전히 부합한 교회 조직과 관리 속에 있었는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수준만큼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그와 같이 서로를 상호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믿음과 성결과 같은 중요한 교리에 일치할 뿐 아니라, 복음적으로 제정된 적극적인 성례들에 관해서 유형적으로도 일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의 차이점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포함하지 않는 일들, 이를테면, 사적인 의

건이나 인간의 창안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와 같은 일로 나누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러면, 누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창안들을 포기하며, 사적인 견해들을 형제들에게 부과하는 일을 멈추며, **그래서** 우리의 불화가 치유될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 복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신약성서에 계시된 본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모든 교회 교파들에 속한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서 멀리 해야 할 교육적 편견들과 독특한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선포한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말로든지 혹은 승인된 전례이든지, 분명하게 지시되어져 있거나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믿음과 실천의 문제로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본래의 구조적 일치에로 환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된 일치 속에서 모든 우리 형제들과 화평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즐길 것이다. 의무에 충실한 겸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멸망해 가는 인류의 형제들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감으로 심하게 각인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히 기대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행한 제언에 대한 고무적인 이유들과 우리가 공언했던 모든 신성한 동기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교파 교회의 형제들을 부르고, 초청한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치 즉 그리스도는 홀로 **머리**이시며, 중심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법칙**이란 점을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신앙하며, 그 말씀에 분명하게 순응하는 유대 속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이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진실로 우리는 누군가가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무슨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

는 감히 계시된 진리와 의무의 문제들에서 본질들과 비본질들 사이의 진부하고 한계 없는 구별을 생각지도 못하며, 제안하지도 못한다. 또한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무엇이든 시간에 확고하게 인정되었으며, 그것들을 들어내거나 명령하고 있는 신적 권위에 대한 높은 의무는, 우리가 아는 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그것들을 믿고 이행하게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며, 우리의 특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어떤 이유도 가질 수 없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간구한다. 그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초대라는 것을 알게 하자. 여러분의 승낙으로 우리는 많은 수가 될 것이며, 적은 수든지 많은 수든 시간에 먼저는 모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진실한 일치를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행사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엇이 이루어지든 시간에 정한 때와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디에서 모이든 시간에, 누구에 의해서 추진이 되든 시간에,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분명히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매우 미약한 출발들을 심지어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창대한 행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의무는 우리의 것이지만, 행사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왜 그것이 시기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져야 하는가? 일들이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시간이나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정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공개적인 선언과 관습의 유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교파들의 더욱 큰 근접함에 가까운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집의 점진적인 퇴보가 기대되어 지겠는가? 전자에 대해서는, 차이가 최소인 곳에서는 반대가 대의의

장점들에 반대로 균형 잡힌 열정의 정도에 따라서 항상 처리되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몇까지 이유들과 입장들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는 기쁘지만, 또 우주적으로 아집이 쇠퇴하기를 바라지만,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런 가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까지도 이런 수단에 의해서 그와 같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진실로,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항상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아집에 빠지기 쉽다. 이 뿐만 아니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들을 반드시 후원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는 사탄이 자기 왕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증진시키는데 나태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즉 우리의 세상적 관심들에 유사하게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종류의 시비에 우리 자신들이 결코 만족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시되도록 하자. 여기에 제안된 시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란 점과 그것이 질투를 유발하거나 특정 교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향을 전혀 지닐 수 없다는 점을 부언코자 한다. 그 반대로, 교회들 사이에 우주적으로 인정되고 스스로 입증된 진리들의 견고한 기초에 바탕을 둔 항구적인 성서적 일치에 향한 모든 노력은 인간 대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계몽하고 화목할 가장 행복한 경향을 지녀야 한다. 성서는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다.”<sup>6)</sup> 진실로 만일에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그와 같은 적절한 근거도 공정하게 나타나질 수 없다면, 모든 올곧고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약자들을 위해서 채택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절차의 방법도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지 않을 것

---

6). 역자주: 요한 2서 1-2절.

이다. 그러므로 원리에 입각한 이 거대한 목적의 성취는 영원토록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가정에 입각해서 오로지 자발적인 절충과 선한 본성의 타협 말고는 그것을 성취할 어떤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그럭저럭 성취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과 기도들이 무익하다는 것이 전혀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도 문제 제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법이 무엇이든 지간에, 신이 계시하신 진리의 확고한 근거에 입각에서이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은혜로운 겸손의 선한 본성의 원리이든 지간에, 그러면, 그것은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동일하게 실용가능하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의 기질과 분별, 즉 우리의 자비로운 구세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하며, 그분의 백성에게 내린 구세주의 명백한 명령인 그리스도인의 기질과 분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sup>7)</sup>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적법한 만큼 실행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것을 시도해 보자. “굳세게 하여 일할지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sup>8)</sup>

오로지 한 양떼가 있고, 오로지 한 분 목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복된 행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을! 우리가 한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다소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sup>9)</sup> 예수의 사역자들에게 오로지

7). 역자주: 고린도전서 1장 10절.

8). 역자주: 학개 2장 4절.

이 권고를 받아 들여, 그들의 손을 그 일에 대게 하며, 분명한 진리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도록 독려하며, 전체 그리스도인의 일치로 결속해서 연합하도록 하자. 누가 감히 그것이 곧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sup>9)</sup>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각별하게 속한다. 언표 되고 인정된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이 선한 사역에서 그들의 앞장을 서며, 그 길에서 인간의 견해들과 사람의 창안들을 제거하며, 우선적이고 믿을 만한 계시의 순수한 알곡으로부터 이 쪽정이를 조심스럽게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가장(假裝)된 권위를 추방하고, 법률화시켜 포고하는 권세에 의해서 저 일들은 부여되고 세워졌다. 이 목회적 분야에까지, 그러면, 우리가 근심으로 바라보는가. 예수의 사역자들인 여러분은 교회의 분열과 부패를 모른 채 할 수 없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주신 명령들, 그의 신앙공동체의 보이는 일치를 위한 마지막 열정적인 기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관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개인적인 영광과 그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도 크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침묵은 승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팔처럼 소리를 높여 저들 부자연스럽고 적그리스도적인 분열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찢어 놓고 망쳐 놓은 분열의 흉악한 성질과 무서운 결과를 폭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와 특성에서 정의와 주님의 명예를 걸고, 시온의 갈라진 틈들을 고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스런 노력들을 우리는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일치와 사랑 속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 . 우리는 참아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라기 2장 1-10절을 보라).

9). 역자주: 출애굽기 14장 15-16절.

10). 역자주: 이사야 62장 10절.

아! 목회자들과 사람들은 무덤 속에는 분열이 없고, 사후의 세계에서도 분열이 없다고 오로지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는 분열이 끝장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현세의 짧은 수명의 분열들에 종지부 찍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사후에 어떤 축복, 심지어 행복하고 연합된 교회까지도 남길 수 있기를 하나님께 바라는가. 한편, 우리의 분열들이 목회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무슨 만족이나 실용성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이 심판 때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것들이 죄인을 그의 잘못된 방법에서 개심 시켜 죽음으로부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는가?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몹시 불명예스럽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해로운 죄악의 가득함을 숨겨 줄 어떤 의향을 갖는가? 오히려 그것들은 죄악을 짜증스럽게 하고 생산해 내지 않는가? 그것들이 신자들과 불신자들 속에서 만들어 냈고, 현재까지도 만들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에게 간구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축복되고 책임 있는 시도에 일치하기를 간청한다. 무엇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와 같은 것이 광야에서의 회막에 관한 일이었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사람의 권위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일이다. 이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은 우리들 사이에서 쓰러진 다윗의 회막을 일으켜 세우며, 그것을 본래의 토대 위에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거나 자기 자신의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문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이 더불어 교제하고 자문하고 충고하며, 친절한 기독교인의 태도로 그 주제를 탐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마땅한 복종과 순종함으로 분명하고 중요한 교제의 의무에 우리 형제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단순하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공통된 대의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이런 영광스런 대의 속

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연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연합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과 우주적인 일치와 평화와 순수함의 대의이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대의이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합하자.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앞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협력하자. 나른하고 성가신 거짓 선지자의 세이렌 요정의 노래소리에 취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잠들지 않게 하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의 집이 세워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를 믿지 말라. 여러분은 때의 징조들을 구별치 않는가? 두 증인이 그들의 정치적 죽음의 상태와 수대에 걸친 오랜 박해로부터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들 적들의 경악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두발로 맞서지 않았는가? 그들의 부활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도시 십분의 일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이 나라들로 분노를 일게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분노, 그렇다, 대노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오 주님, 당신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sup>11)</sup>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이 엄청난 지진과 큰 우박과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듯 부수셨고, 부수고 계신<sup>12)</sup> 이들 무서운 소란과 혁명에 대한 보도를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 이 무서운 충격의 진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주 먼 곳에 피난시켜 놓은 우리들에게까지도 느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주께서 말씀과 섭리로 회개와 개혁으로 우리를 매우 크고 분명하게 부르고 계신 때에, 우리가 부패와 분열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인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11). 역자주: 계시록 11장, 11장 18절.

12). 역자주: 계시록 2장 26-27절.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sup>13)</sup> 그 고귀하고 값비싸게 산 자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신 자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권위예의 복종으로부터 자기 자신에로의 자유를 회복하라. 지상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로 또는 선생으로 부르지 말라. 한 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선생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그러므로 이 고귀한 자유 안에서 든든하게 서자.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 고귀한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주창자들임을 선포하였다. 이 상서롭고 의무에 찬 목적을 위하고, 이 목적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미력한 노력이나마 공헌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형제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속하였다. 우리는, 이 축복된 목적을 위한 우리의 첫 열매로서, 형제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다음의 명제들을 겸허하게 발표한다. 우리는 형제들의 사랑과 솔직함을 의뢰하며, 그들이 우리의 보잘것없고 모험적인 시도를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만약에 그들이, 일종의 준비단계로서, 교계의 형제들과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항구적이고 성서적인 일치에의 길을 여는 데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면, 우리는 그 점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명령할 의사가 없으며, 증거적이고, 모순이 없고, 적절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대한 목적에 대한 그들의 경건하고 의무에 찬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수정 제의를 해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히 교회에 주어진 총체적인 은사들은, 만일에 그것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에 합당하게 결합되고 집약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같은

13). 역자주: 이사야 52장 1-2절.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sup>14)</sup>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sup>15)</sup>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시들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충족함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들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높임을 받으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같이, 우리는 참 교인들의 일치를 정당하게 의심할 수 없으며, 협력하여 충실하게 행하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사장되어 가고 있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명령과 기도를 신뢰한다면, 확실히 진리와 성결,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들이 맺은 보이는 일치는 이들 모두에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언급된 중요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파의 이름들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들의 도움의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 것이요,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진실로 자원하여 그들의 채무자가 된 것같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은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라,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가장 겸허하게 여러분에게 간구한다. 우리의 취약한 출발을 여러분의 빛으로 빛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교회의 일치와 순수성과 번영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 있는 협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을 증명하라.

추가된 명제들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신조나 혹은 표준을 향한 일종의 제안으로 혹은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결국 고안된 것이며,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도되었다고 아무도 생각지 말아 달라. 어느 것도 우리가 의도한바와는 다르다. 그것들은 단순히 길을 트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확고하며, 분명

14). 역자주: 고린도전서 12장 7-10절.

15). 역자주: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고, 확실한 전제들의 본래의 바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며, 사도들이 그것들을 행한 것처럼 일들을 취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대 사이에 끼여드는 증가하는 당황함을 제거함으로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썼던 같은 바탕 위에 증거를 가지고 설 것이다. 관심을 유도하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명제 1.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서대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며, 그들의 기질과 행동에서만 큰 같은 것을 표명하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다. 다른 누구도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 질 수 없다.

2.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별하고 구별된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 떨어져 위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분열이나 무자비한 분쟁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영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같은 법칙으로 보조를 맞추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

3.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믿음의 조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제의 시금석으로서 그것들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한다. 교회 헌법이나 관리규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서교회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만을 인정해야 한다.

4. 신구약성서의 말씀이 불가분리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의 덕과 구원을 위해서 둘이 하나님의 뜻이 담지 된 완전하고 통전적인 단 하나의 계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

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서가 신약성서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며,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서가 구약성서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서가 분명한 실행의 시간과 방법에 관해서 침묵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가정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례들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들 제도의 언포(言布)되고 분명한 목적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이들 명령과 예전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새로운 명령과 예전을 교회에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신약성서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의 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6. 성서적 전제(前提)로부터 공정하게 추론된 신학적인 해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리로 참으로 인정될지라도, 그것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 사용될 뿐이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엮어매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믿음은 인간의 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어떠한 해석도 교제의 시금석이 될 수 없고, 다만 교회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심의 함양에 진정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7.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크게 체계화시켜 보편적인 오류를 막고 변증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고,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더욱 충분하고 명확할수록 더욱 좋다 할찌라도, 이것들은 대부

분이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임이 틀림없고, 또한 많은 추론적인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것 즉 아무도 교회의 교제에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매우 분명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소유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교리적인 지식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는 부형들은 물론이고 유년과 청소년들로 처음부터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8. 사람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독특한 지식이나 특출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지식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 되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이 본성과 행실로 상실되었고 죽어 가고 있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믿음과 순종의 신앙고백이 동반될 수 있는 정도의 성서적 자기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다.

9. 은혜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기질과 행실로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며, 형제로서, 같은 가족과 성부의 자녀들로서, 같은 성령의 성전들로서, 같은 몸의 구성원들로서, 같은 은혜의 실체들로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같은 피값에 구입되었고, 같은 기업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sup>16)</sup>

10.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은 많은 악들로 가득한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보이는 일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나누인 것처럼 그리스도

16). 역자주: 마태복음 19장 6절.

의 몸의 일부를 추방시키고 파문시킨다. 분열은 주의 절대 권위로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비성서적이다. 그것은 주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분열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경멸하며, 미워하며, 반대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스런 의무로 결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분열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낸다.

11. (어떤 경우들에서는)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태만과 (다른 경우들에서는) 인위적인 견해들과 인위적인 창안들의 승인을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고, 그것들을 교회의 헌법, 믿음, 혹은 예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권위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례들, 즉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된 모든 부패와 분열의 사례들이며, 사례들이었다.

12. 지상의 교회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상기한바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성서적 자기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입교인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그들의 기질과 행실로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교인으로 남을 수 없다. 셋째, 성서적으로 마땅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믿음과 성결에 대한 조항들 이외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의 전례(前例)대로, 인위적인 견해와 사람의 창안과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더하지 아니한 채, 모든 하나님의 예전들을 정확하게 지킨다.

13. 마지막으로, 만일에 하나님의 예전들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정황적인 요소들이 계시의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만드시 그러한 것들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방편이란 이름아래서 더욱 성서적이란 주장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준행여부나 계속되는 변경 또

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들 명제들은 우리 협의회가 선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것이 문장의 성격과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들 명제들은 전에 필요했던 의무, 즉 시온의 이익을 조성하려는 모든 사람의 손을 통해, 현존의 상황들 속에서, 큰 소리로 요구된 의무 이행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열되었다. 이 의무는 이사야 57장 14절에 이미 명시된 대로 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일로써 충실한 자취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sup>17)</sup>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인 진리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들의 주의력을 최초의 원리들에 집중시키며, 길 위에 놓여 가로막는 거치는 것들 즉 시대적인 폐물을 제거하며, 그들 앞에 놓인 길을 정리하여,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실수나 부주의로 방향 전환을 잘못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항구적인 성서적 일치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적어도, 상기한 명제들의 신실한 의도이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 의도에 충실했는지는 우리 형제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것들이 성서와 올바른 이성의 빛에서 논증적으로 입증된 진리들을 드러내 보여 주고, 그것들의 어느 일부라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들이 상기한 목적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고려될 때, 그것들이 적절해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들이 틀림없이 원하는 결말에로 이끄는가? 이들 세목의 어느 것에서든지 명백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이 충분히 증거적이고, 적절하여, 반대할 도리가 없을 때까지 그것들이 고쳐지고 수정되게 하자. 그러는 동안 그것들이 엄밀함으로 즉 정의와 솔직함과 사랑이 인정할 모든 엄밀함으로 검사

17). 역자주: 이사야 57장 13-14절.

되게 하자.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잘못되게 했다면, 우리는 기쁘게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동안, 우리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즉 만약 그것들이 채택되고 따라서 실행되었을 때, 틀림없이 원하는 일치에로 인도하며, 그것을 획득했을 때, 보장할 진리들을 제시하도록 기쁘게 인도되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총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심과 더불어 힘을 갖는 것, 이성적인 확신과 수용할 만한 순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목소리이다. 다수의 결정을 기다리는 양심, 다수가 투표로 결정하도록 미결로 남긴 양심은 죄인에게 어울리는 주제이다. 이것이 모든 교파교회의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는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와 같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면, 머지않아 시온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조용한 거주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의 바램이기도였고, 언제나 그래야 한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우리의 표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깃발을 펼친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서방에서 여호와와 이름의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sup>18)</sup> “대적이 홍수처럼 밀려 올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대항하여 깃발을 드실 것이다.”<sup>19)</sup> 우리의 겸허한 바램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sup>20)</sup> 요새들, 심지어 이 모든 분열의 요새들, 저들 분단의 경계벽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고, **그분의** 양떼를 나누어 놓으며, 적어도 그것이 이 세상을 중히 여기는 한,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여리고 성같은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분의** 깃발아래서 **그분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그분의** 기수가 되는 것이다. 대적이 이것을 했지만, 그는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18). 역자주: 이사야 59장 19절.

19). 역자주: 이사야 49장 22절 및 62장 10절 참고.

20). 역자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그들은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sup>22)</sup>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깨지고 분열된 현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스로 분열된 왕국 혹은 집은 설 수 없으며,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다.”<sup>23)</sup> 이것이 교회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좃으리로다.”<sup>24)</sup> 그와 같은 모든 것과 오직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기대가 집중된다. 그러므로 오라, 주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다. 우리로 또한 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들 전체들 안에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며 초청한다. 가까이 계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자. 너무 멀리 계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달라. 할당된 교구 내에서 여러분의 주의 부족이 극복하기 어려운 실망을 가져오게 하지 말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sup>25)</sup> 이와 같은 약속 위에 서서, 모든 가능하고 약속된 선에 도달키 위해서는 실망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오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sup>26)</sup> 다음과 같이 명령한 예언자의 고결한 해결책을 따르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21). 역자주: 시편 37편 11절.

22). 역자주: 다니엘 7장 18, 27절.

23). 역자주: 마태복음 12장 25절.

24). 역자주: 시편 94편 14-15절.

25). 역자주: 마태복음 18장 19-20절.

26). 역자주: 이사야 62장 7절.

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sup>27)</sup>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명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 모이기 위해서 편리한 지역에 따라서 연합하고, 주님께 우리의 비통한 분열들을 끝내 주시도록 간청하고,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연합하며, 주님의 교회가 본래의 구조적인 일치와 순수성을 회복하며, 그래서 교회의 약속된 번영의 기쁨을 누리며, 유대인들이 급히 개종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sup>28)</sup>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합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슬픈 분열들의 사악한 원인을 조사하며, 그것들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심사숙고하여 몹시 슬퍼하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sup>29)</sup>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그것들 때문에 통곡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아!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혀 왔던 비통한 저들 불행들의 대물림에서, 즉 통곡하기보다는 당파심이 이들 파괴적인 악들의 비통한 원리를 모든 곳에서 정당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계시되거나 명령되지 않은 사건과 인위적인 추론의 문제에서 그들과 함께 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는, 저들을 배척할 권리를 고집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합리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연합하신다면, 화평의 친구들, 즉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주창하는 자들이 좀 더 작은 저들 몇 개의 협의회들과 편리한 중심지에서 반년에 한 번씩 모일 곳, 즉 보다 큰 규모의 협의회에 연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결합된 노력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사역하는 주의 목회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 봉사에 자원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주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요, 온몸으로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27). 역자주: 이사야 62장 1절.

28). 역자주: 로마서 11장 25-26절.

29). 역자주: 호세아 5장 15절.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 끼고 어두운 날에 흩어져 버린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우리의 슬픈 분열들을 비통해 하며 통곡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교리나 명령을 거절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법률이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해설이 우리의 법 이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도 명백한 법의 조문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상태이거나 거절된 상태에 있지 않은 한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판단하고, 배척하고, 거절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은 일치와 사랑의 커다란 기본법이, 명백한 계시와 동등한 상태로 인위적인 견해들을 높이고, 믿음의 조항들과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도 그렇다. 예수의 진실하고 공평한 추종자들이요, 진리와 평화의 친구들인 여러분, 우리는 감히 여러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품에 위배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에 모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협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들, 즉 우리가 그들로부터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형제들 가운데 어느 분이라도, 연약함이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해 온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을 관대하게 바란다. 오직 그와 같은 것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말며, 한편,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비추일 때에 거절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가장 진지하고 정중하게 제출한 것을 오히려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한 기도로, 성령을 겸허하게 의지함으로, 자기

만족감이나 당파심이 아닌, 성역의 균형에서 모든 정서의 무게를 달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화평을 확신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가 지적 수준에 있어서 형제들보다도 우월하다거나 실수가 적다고 오만을 편다고 말하거나 상상치 말라. 지금까지 우리의 확신은 명백한 성서와 그것에 전거(典據)를 둔 일들의 사실적 증거에 따라서 전적으로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부주의와 편견 때문에 그들의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는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증거적인 진리였던 것들의 일부에 관해서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악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억측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가능한 악들에 대항하여 경고하는 것이 사랑을 쪼개어 놓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어떤 일들의 확실성을 확신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주제 넘는 논쟁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체를 위한 성스런 대의를 촉진키 위해서 제안한 어떤 것, 즉 그것이 그것과 더불어 그것 자체의 증거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것에 관해서, 결단코 우리 형제들의 시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서 공정하게 조사 해볼 것을 겸허하게 요구하며, 그래서 우리가 빈약하게 시도했던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이 도와 줄 것을 간청한다. 한편, 원했던 행사가 기쁘고 영광스러울 만큼 확실해서 어떤 논쟁도 인정치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장려할 적당한 방법에 관해서 주저하거나 의견이 다를지 모른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적절한 입장을 취했다고 믿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을 단념한다. 왜냐하면,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표준에 명백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것은 무엇이든 지간에 단단히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된 영향아래서, 일치, 평화, 그리고 순수함을 장려하고 유지할, 적절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교파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저들 무

가치한 특권들을 얻는 것을 전적으로 단념한다. 교파의 이익을 용인하면서 일치의 대의를 주창하는 것은 나라들에 대 소동을 일으켰고,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 무서운 싸움에서, 나라의 중립을 유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국들에 이 나라가 동참하는 것만큼 불합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어찌할 바 모르던 교회가 과거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여러 갈래로 찢고 나누었던 바로 그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첫째 되고 기초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순서상으로 바로 그 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다.”<sup>30)</sup>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sup>31)</sup>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믿음의 영, 사랑의 영, 그리고 건전한 마음의 영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우리들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받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와 우리를 다같이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도 그와 계속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건대, 우리에게는 너무 깊은 신비이다.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법의 조항을 위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신자를 의도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든 지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으셨고, 혹은 그가 그리스도를 그의 교사와 주로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바로 그 제안된 목적을 분명하게 전복시키는 수단, 수대에 걸친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로, 기독교의 보이는 이익을 던져 버리는 일에만 단지 성공적인

30). 역자주: 로마서 15장 7절.

31). 역자주: 요한일서 3장 23-24절.

수단, 가능하다면, 선포된 의도, 즉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방해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저들 악들을 제거하고 막는데 결코 빈틈없는 방책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치와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인위적인 조직들의 편찬자들과 선동자들의 그럴싸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들의 진실한 의도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그 목적에 해답을 주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실증적으로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아니, 심지어 그것들을 가장 엄격하게 채택했던 몇몇 교파들까지도 그렇지 못했다. 하물며 온 세상의 교회야 말할 필요가 있으랴. 교회의 우주적 구조적 일치와 순수함 대신에, 작금에, 교회는 교파와 교파조직들에 대한 안내서, 즉 세상 끝날 까지 그대로 변치 않겠다는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서약들에 의해서 각 교파를 묶어 주고 있는 안내서 이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적어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교파에 있어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일치와 사랑 대신에 이것들로 대치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다른 한편, 인간이 순복할 수 있는 어떤 인위적인 의무도 진리를 대항하는데 무가치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치유자이신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 오셔서, 그들이 어둡고 졸린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묶인 채로 고생했던 저들 인위적인 결합들의 성격과 경향을 그들에게 밝혀 주실 때에, 그들은 삼손을 묶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었던 놋쇠줄 이상으로, 적그리스도가 종교개혁가들을 포로로 묶었던 속박이상으로 교파적 속박의 상태에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곧 그의 백성의 눈들을 열어 주셔서 그들의 참빛으로 사물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광야의 상태와 이 바벨의 혼란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독려하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서로 포용하며, 평화의 결합 속에서 성령의 일치를 튼튼하게 붙잡기를 기원한다. 이 은혜로운 일치와 예수 안에서의 전원합의가 그와 더불어 그들의 연합의 가장 최고의 외적 증거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공동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sup>32)</sup>고 그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sup>33)</sup> 그리고 또다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sup>34)</sup> 심지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sup>35)</sup> 주께서 그것을 그의 시간 안에서 서두르시기를 기원한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토마스 아체슨(Thomas Acheson).

## 해설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1763-1854)이 초안하여 재정부장이었던 토마스 아체슨과 공동명으로 1809년 9월

32). 역자주: 요한복음 13장 35절.

33). 역자주: 요한복음 13장 34절.

34). 역자주: 요한복음 17장 11절.

35). 역자주: 요한복음 17장 20-23절.

7일에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56쪽의 소책자이다.

이 책자에서 강조된 내용은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 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일치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치를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받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헌장이다. 여기에 번역된 ‘선언’과 ‘제언’은 전체 내용의 약 40퍼센트에 해당된다.

『선언과 제언』을 작성한 토마스 캠벨은 1763년 2월 1일 아일랜드 카운티 다운(County Down)에서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키발드는 울프 장군(General Wolfe) 휘하에서 퀘벡(Quebec)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 출신이었다. 그는 본래 가톨릭 신자였으나 후에 성공회로 개종하여 충실한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 캠벨은 아버지 아키발드에게서 성공회 분위기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도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성서를 즐겨 읽었다.<sup>36)</sup> 그가 받은 가정교육(training and discipline)은 매우 교훈적(didactic)이며, 성서적이고, 엄격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성서와 브라운의 교리문답서(Brown’s Catechism)를 매일 읽고, 암송하였다.<sup>37)</sup> 이런 가정 교육의 영향으로 후에 토마스 캠벨은 “예리한 비평가, 엄격한 규율가, 헌신적인 신학자”<sup>38)</sup>가 되었고, 알렉산더 캠벨을 같

36). William Herbert Hanna, *Biography of Thomas Campbell Advocate of Christian Union*, reprinted and distributed by College Press Publishing Co. Inc. in Joplin Missouri, pp. 23-24.

37).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H.S. Bosworth, 1861), p. 9.

38). Morris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p. 68.

은 방법으로 교육시킨 훌륭한 아버지였다.

토마스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한동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였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토마스 캠벨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였다. 그는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Glasgow) 대학교에서 3년간 신학 교육을 받았고, 반공민파 분리주의 장로교 소속인 휘트번(Witburn) 신학 대학원에서 일 년에 8주씩 5년간 목회자 수업을 받았다.<sup>39)</sup>

목회와 교육에 전념하던 캠벨은 교회 분열의 뼈아픈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일찍부터 교회 연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798년 안수를 받은 직후, 캠벨은 이미 교파의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지방회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에 그의 교회는(his group of Prebyterians) 20년간 지속된 믿음의 본질에 대한 표독한 논쟁에 개입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논쟁에 활동적으로 개입하면서, 엄격한 교파주의를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sup>40)</sup>

1802년 캠벨은 두 분리주의 교파가 연합하기 위해서 조직한 첫 위원회에 반공민파 대표로 활동하였고, 1804년 벨헤스트(Belfast) 지방회 때와 1805년 룰간(Lurgan)에서 열린 연합 모임 때에도 연합에 대한 노력을 힘썼다. 그러나 캠벨의 형제들은 1806년 글라스고우(Glasgow) 총회 때에 그의 계획에 반대하였다.<sup>41)</sup>

토마스 캠벨이 목회 하던 당시 교계의 상황은 분열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토마스 캠벨이 아일랜드 아호리(Ahorey)에서 목회 하던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편협한 당파의식과 성서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1528년 2월 29일, 패트릭 해밀톤

39). William Herbert Hanna, *op. cit.*, pp. 25-26.

40). Hiram J. Lester, ed., "Preface to Abridged Edition," *Declaration and Address*, 175th Anniversary Abridged Edition, written by Thomas Campbell in 1809.

41). *Ibid.*

(Patrick Hamilton)의 순교 후에 개혁교회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60년, 요한 낙스(John Knox)가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일련의 정치적 종교적 전쟁들을 치른 후에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로서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그 유명한 국민 계약에서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배타적으로 칼뱅주의를 고수할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1643년 그 계약이 정치적으로 수정 해석되었고, 그것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자들(Covenanters) 혹은 개혁 장로교인들(Reformed Presbyterians)이라는 이름 하에 독립된 교회와 조직체(societies)를 구성하였다. 그 후에 국가가 교회의 동의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을 때, 알렉산더 에르스킨(Alexander Erskine)과 몇몇 목회자들이 1733년 국교와 분리하여 분리 장로교회(Seceder Presbyterian Church)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 교단은 시의원들에게 요구되고, “국가 안에서 현재 인정된 종교”(the religion presently professed within the realms)를 지원토록 그들을 제한하는 서약이 자신들이 대항하는 국교 내에서 악습을 허용하는가의 문제로 1747년 갈라졌다. 서약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공민파”(Anti-Burghers)가 되었고,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은 “공민파”(Burghers)가 되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179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3장과 본래의 국민 계약서에 주장된 시의 종교기관들(civil magistrates in religion)의 권한 문제로 “공민파”는 “옛빛 공민파”(Old Light Burghers)와 “새빛 공민파”(New Light Burghers)로 나뉘었고, 반공민파는 “옛빛 반공민파”(Old Light Anti-Burghers)와 “새빛 반공민파”(New Light Anti-Burghers)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캠벨이 속해 있던 교회는 아이랜드의 옛빛 반공민파 분리 장로교회였다. 공민파의 서약은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논쟁들이었으며, 아이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구적으로 분리되기를 고집하였다.<sup>42)</sup>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연합 운동으로 인해서 신경성 복통을 얻었

던 토마스 캠벨은 의사로부터 목회를 잠시 쉬고 바다 여행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44살의 나이로, 1807년 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캠벨은 북아메리카 노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찰르티에르 장로회(Charliers Presbytery)에 소속되어 7월 21일 북버팔로(North Buffalo)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sup>43)</sup>

그러나 그의 진보적인 생각과 설교로 인해서, 이단이란 소문이 8월 하순에 퍼지고 있었다. 9월경에는 이미 지도급 성직자들이 그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10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설교약속이 취소되었다. 다음해 1월초에 그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1808년 3월 8일에는 목회사역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았다.<sup>44)</sup> 그리고 1808년 9월 18일, 캠벨은 찰르티에르 장로회로부터 탈퇴하였다. 이런 불이익의 원인이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활동 때문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들의 분열현상은 미국 땅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토마스 캠벨은 미국에 와서도 북 아일랜드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아픔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이 캠벨로 하여금 더욱 성서적인 교회와 일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던 원인들이었다.

캠벨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 근처에 위치한 아브라함 알타르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캠벨은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축적되어서 결국 1809년 9월 7일에 『선언과 제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sup>45)</sup> 토마스

42).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p. 37.

43). Alexander Campbell, *op. cit.*, pp. 8-10; Morris Womack, *op. cit.*, pp. 70-71.

44). Hiram J. Lester, *op. cit.*

45). Morris Womack, *op. cit.*, p. 72.

캠벨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09년 8월 17일 버팔로에서 모였을 때에, 참석자들이 각기 다른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부분 확정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지명한 신앙 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에, 선포 이후의 목적들을 위해서, 심사숙고 후, 전원합의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복음사역자인 토마스 캠벨의 도움으로, 그들 협의회의 중대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21명을 지명하여 함께 모여 협의토록 하였다. 협의의 결과로 『선언과 제안』이 빛을 보게 되었고, 협의회의 비용으로 협의회를 위해서 1809년 9월 7일 출판하기로 하였다.”<sup>46)</sup>

‘선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그리스도인 협의회’라 칭하였다.
2. 필요한 운영자금은 자율적인 기부금 납부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3. 다른 지역에서의 ‘협의회’ 조직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4. 협의회는 교회나 교단 혹은 통제기구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5. 성서에 입각한 단순한 복음만을 강조하였다.
6. 1년 임기의 간사, 회계, 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결의하였다.
7. 협의회 모임은 5월과 11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8. 협의회는 설교로 개회하고, 규정과 제안 및 회의록 낭독, 헌금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9. 협의회 운영기금과 선교후원기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기금이라도 협의회 차원에서 사의가 표명되도록 하였다.

성서를 헌법으로 하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된 ‘제언’에서는 13개 명제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교회는 하나이다.
2. 분열은 있을 수 없다.
3. 성서만이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

46).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p. 90.

4. 신약성서는 예배, 징계, 치리, 및 의무를 정한 헌법이며 규율이다.
5.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성서해석에 의한 결론은 신앙인의 양심을 제한할 수 없다.
7. 조직신학 체계를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8. 입교인의 자격이 성서 지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9. 기본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10. 분열은 죄악이며, 반기독교적이며, 비성서적이며, 비자연적이다.
11. 인간의 견해와 창안을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는 것은 부패와 분열의 원인이다.
12.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입교인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교인으로 남을 수 없으며, 성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로 남을 수 없다.
13.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예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유로 하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토마스 캠벨은 1854년 1월 4일 수요일, 한 달 부족한 91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그가 썼던 방과 침대는 베다니에 있는 알렉산더 캠벨의 집에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51년 6월 1일 88세 때에 베다니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 때 그는 이미 실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펜들톤(W.K. Pendleton)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었다.<sup>47)</sup>

그가 택한 마지막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사랑했다. 그는 성서의 권위회복과 교회연합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인물이며, 위대한 환원 사상가인 알렉산더 캠벨을 배출한 목사요, 교육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47). Morris Womack, *op. cit.*, p. 74.

## 참고서적

- Campbell, Alexander.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 Cincinnati: H.S. Bosworth, 1861.
- Campbell, Thomas and Acheson, Thomas.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Hanna, William Herbert. *Biography of Thomas Campbell Advocate of Christian Union*. Reprinted and distributed by College Press Publishing Co. Inc. in Joplin Missouri.
- Lester, Hiram J. ed. "Preface to Abridged Edition." *Declaration and Address*. 175th Anniversary Abridged Edition. Written by Thomas Campbell in 1809.
-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 4. 루넨버그 서신<sup>1)</sup>

번역: 조동호

### 들어가는 말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은 링컨 신학 대학원이 교재로 쓰기 위해서 간편한 형태로 편집해 출판한 문서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신과 알렉산더 캠벨의 해설과 설명이 1837년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에 처음 실린 이후 환원운동권에 속했거나 속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루넨버그의 “양심적인 자매”에게 보낸 캠벨의 회신에서 비롯된 쟁점들의 토론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이 잡지를 통해서 계속되었다. 캠벨과 다른 저자들, 특히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와 토마스 헨리(Thomas M. Henley)의 기사들이 1837년부터 1840년까지 다음과 같이 『천년왕국 예고자』지에 실렸다.

1837년호: 411-414, 506-508, 561-567, 577-578쪽

1838년호: 348-349, 426-427, 520-521

1839년호: 43-45, 124-128, 168-179, 213-216, 292-294, 395-401, 475-476, 529-531, 547쪽

1840년호: 21-22, 106-109, 125-128, 162-165, 275-277쪽

루넨버그의 자매로 하여금 『천년왕국 예고자』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 캠벨의 글은 “영국에 보내는 서신들, 제 1 호”(Letters to England-No. 1)로 제목이 붙어진 기사(記事)였다. 이 기사는 1837년 6월호에 실렸다. 이 기사 전문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겠다. 문제

---

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u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 1837, reprinted by the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가 됐던 부분은 신명 순명조체로 표기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몇 가지 질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본인은 우리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들이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회, 교육협회, 문서선교, 성서공회, 금주회, 반노예 연합단체를 만들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각 교회가 특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재물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a Christian)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 판단으로 기독교는 모든 불경과 불의, 부정, 억압 그리고 잔악한 행위를 세상에서 몰아내고, 인간 실존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자선과 자비와 구제의 일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한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는 그들을 후원해야 한다. 전 사회가 지적로나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훈련을 받고 유용하고,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성서는 언제나 발행되어야 하며, 때때로 신앙문서, 신문, 잡지 그리고 팜플렛들이 세상 곳곳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며, 특히 모든 알콜성 음료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렇다. 때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절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이슬람교도(Turks), 유대인, 무신론자와 같은 주의 적들과 비밀리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종이든지, 고용인이든지 간에 그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모든 책략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정당하고 동등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허용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모정(母情)과 부정(父情)의 품에서 유아들을 판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오래고, 존중할만하고, 성스런 결혼제도를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그 밖의 다른 인위적이고 상황적인 구별이나 차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동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신앙으로 교육받고, 영생을 위해 훈련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훈계로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받드는 신념이요, 주장이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all Christians)이 협력하는 것과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판단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그들이 우리 형제 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든지 혹은 소속되어 있지 않든 지간에 그들과 협력하는 것에 반대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도 관련된 지식과 기회들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만 큼이나 모범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무리와는 연합단체(confederacy)를 형성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대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종들을 후원(tax)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협의체들(associations)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관계없이 이들 결속된 연합체(union)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공동체(a community)를 형성하는 한, 그리고 그 단체들이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 혹은 신조가 없거나 모든 것을 신조로 삼는 비기독교인들과 단지 일치(coincidence)라는 이유 때문에, 그 것이 무엇이든 기간에, 영적인 교섭을 갖는 한,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같은 한 깃발아래서 행진할 수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조직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회는 실패한 것이요, 하나님의 제도는 단지 사람의 손아귀와 제도들에 굴복 당하고 마는 것이 틀림없다(271-273쪽/볼드체는 캠벨의 것이며, 신명 순명조체와 영문 대문자체는 루넨버그의 자매가 지적한 내용이다).

1970년 3월

## 본문

###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루넨버그, 1837년 7월 8일

존경하는 캠벨 목사님께, 저는 오늘 목사님(brother)께서 개신교 교단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 『천년왕국 예고자』지에 실린 글을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셨더군요.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놀라움과 옳은 것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즉시 이 서신을 목사님께 띄웁니다. 알고자 하는 저의 미약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써 주실 것을 여성의 신분에 관한 목사님의 평가로 볼 때 매우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무슨 행위가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때에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게 했습니까? 어떠한 때에 고넬료는 그리스도가 자신에

관해서 이름 불러지게 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이름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Christ) 혹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의 이름이 오로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장사된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심한 자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에 개신교 교단들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가톨릭교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없고,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말고는 혹은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와 같은 자들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없다. 그러므로 수 백년동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없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약속들도 실패했고, 지옥의 문들이 그의 교회 위에 군림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인,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혹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신약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 전자는 후자를 포함한다. 바울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라”(고후 3:11)<sup>2)</sup>고 명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온전케 됨을 기원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인 너희를 위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sup>3)</sup> 바울은 다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고전 2:6)라고 말한다. 또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전 14:20)고 권한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거나 함축하고 있

2). 역자주: 고린도후서 3장 11절은 13장 11절의 잘못된 인쇄로 생각된다.

3). 역자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다. 뜻과 기질과 행위에 온전함이 있는가하면, 온전한 상태나 온전한 개성도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개성을 절대적으로 상실치 않고도 어느 정도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강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예수께서는 착하고 충실한 사람들이라도 단지 30배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인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지적(知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함(Pharisaism)이나 천박함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솔한 판단 때문에 그들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이나 동의없이 유아 때에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없는 외인들이라고 마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었다”고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셨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외국인이요, 이스라엘의 복지와 관련이 없는 외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sup>5)</sup>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고<sup>6)</sup> 말씀하셨다.

만일에 유아세례자가 성서적으로 더 지적이고, 침례자나 혹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수세례를 받은 자보다 주께 더 은혜 지향적이고, 더 헌신적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내 마음의 편애함을 한 순간도 주저할 수 없다. 다르게 행동한다면, 본인은 골수 교파 교인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일 것이다.

4). 강조는 역자의 것임.

5). 역자주: 마가복음 7장 24-30절; 마태복음 15장 22-28절.

6). 역자주: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하신 말씀이다.

아직도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외에 그가 나의 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대답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주의하기 바란다. 순종을 보편적이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순종을 위한 한 가지 명령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르친 대로 침수이론이나 실천을 후자보다는 전자를 의심 없이 정확하게 인정하는 자보다 교파교회의 세례자나 유아세례자가 더 은혜 지향적이고, 더 그리스도의 요구들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본다면, 본인은 충심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느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 항목들로 정확하게 구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알려진 전체적인 진리에 전반적인 헌신으로 구성된다.

본인과 더불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과 고집 때문에 범하는 과오들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양극처럼 거리가 멀다. 천사도 명령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이해한 범위에서 그것을 순종할 것이다. 요한 번안(John Bunyan)과 요한 뉴튼(John Newton)은 매우 다른 사람들 이었다. 그들은 세례와 다른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에까지 모든 일에서 주께 순종하였다.

타락한 실수가 있고, 타락하지 아니한 실수도 있다. 모든 세계가 저주하지 않으면 안될 고의적인 과오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실수들도 있다. 베드로도 주께서 요한에 관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sup>7)</sup>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오해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sup>8)</sup>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거짓되게 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의 말씀을 왜곡하

7). 역자주: 요한복음 21장 22절.

8). 역자주: 요한복음 8장 51절.

였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들은 명령된 내용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태만해서 발생되었을 때에만 부패된 심령에서 나온 책망할만한 것으로 또 단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무지는 그것이 자발적일 때 언제나 범죄이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무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제도들을 태만히 하고 있고 또 그것들 대신에 인위적인 권위의 다른 어떤 것들로 대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고, 또는, 모르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것을 자발적으로 태만히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실수들이 그들의 모든 공언들을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서에 있는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이며, 범죄이다. 정말 그렇다. 그러나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식과 경건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간주한 것들, 그들이 태어나서 교육받은 곳, 그들 자신의 굴뚝의 연기와 티끌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는 것들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상당한 결핍과 당혹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인들은 면제된다.

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 모두가 자주 과오를 범한다. 본질론자는 정신(the heart)을 알볼지 모르며, 비본질론자는 제도를 경멸할는지 모른다. 후자는 천국의 제도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정신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제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 주신 분은 우리가 제도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을, 그들 중 어느 것도, 또는 종합적으로 그들 모두도 삶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단언함으로써,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들과 교체하기로 오히려 선택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두 눈 중에 하나를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의 진실 되고 성서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sup>9)</sup>

제안된 모든 질문들이 한 가지 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점에만 이들 의견들을 집중시키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령(ordinance)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자진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리 없다는 생각을 주저 없이 발표한다. 그리고 만일에 제정(institution)의 의미를 실수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심령으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그가 영원히 멸망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친다면, 나 자신의 확신과는 반대로 나 또한 범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에 결론을 내리자면, 극복하기 어려운 무지와 비자발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태만히 하거나 범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요구하는 자, 혹은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수단과 기회들이 미치는 전체적인 범위에까지 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

9). 강조는 역자의 것임.

영을 소유하지 못했고, 주의 백성들 사이에 등록될 리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치를 따진다. 그리고 신구약성서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지지 받는 증명(reasoning)에 따라 생각한다.

알렉산더 캠벨(A. C).

###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9월호에 실렸던 루넨버그 서신에 따른 기사 중에 어떤 문장들은 두 서너 분의 지식인들과 서신을 주신 훌륭한 많은 분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리는 개신교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의 견해로서 설명했다. 견해,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개진해 왔던 것이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사함에 관한 첫 번째 임시증간호에서 특별히 언명되어진다. 한편, 본인이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점을 양보했다 또는 본인이 이제 말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서의 일정한 부분을 잘못 적용했다고 이들 형제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언급된 기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고 말했다. 이 두 문장이 언급된 기사의 논쟁적인 부분의 관절과 골수 부분이며, 독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질의자의 질문들에 답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의자의 드러난 기분과 견해에 의존한다. 이 경우에도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전적으로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 또 심지어 물에 장사되기 전에 침례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침수세례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허용하지 않는 한, 이들 설명을 요구한 질의들의 제출자는 그리스도인 침례라는 주제에 관해서 극단론자였던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그녀의 서신에서 이것

을 추측했고, 물론 전에 했던 만큼의 용기 있는 답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용기 있는 답변, 그러면서도 그 주제에 관한 한 우리의 이전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답변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고가들에 대한 본인의 높은 관심 때문에 문제된 그 문장들에 관해서 우리의 견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 침수자 신앙인들에게 주어졌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루넨버그의 자매는 물론 그들과도 기꺼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계 공용어에 있어서 다른 모든 말처럼, 바울이 때때로 그 말들의 부분적인 의미에서 성도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들을 사용할 때처럼, 이 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바울이 표현한대로 유대인에도 내적인(이면적) 유대인과 외적인(표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렇다면, 내적인 그리스도인과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없겠는가? 외적인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며, 기고가 중에 어떤 사람은 ‘내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될 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적이며 외적인 사람이 그 말의 온전한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는 것처럼, 우리도 침례에 대해서 이치를 따져 볼 것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sup>10)</sup>라고 박식한 바울은 말한다. 즉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대로,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sup>11)</sup> 침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만이 아니오, 또한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외적인 것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인간을 위한 것

10). 역자주: 로마서 2장 28절.

11). 역자주: 로마서 2장 29절.

이고, 내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칭찬을 위한 것이다.

몇 분의 형제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훌륭한 견해는 이렇다. 왜곡시키지 않은 채로 단순히 침례를 잘못 받은 사람이 내적인 침례를 가질 수 있는가? 의도적으로 혹은 태만하게 외적인 것을 왜곡시킨 사람은 내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에 의해서, 마음에 왜곡시킬 의사가 전혀 없이 외적인 침례를 오해한 자가, 침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그것에 순복했다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내적인 침례를 가질 수 있는가? 꼼꼼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가능하다이다. 이 이상의 것은 단언하지 않는다.

이 견해에 대한 본인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는 이번에 제시할 시간과 공간뿐이다. 일곱 개의 난점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이 일곱 개 가운데 두 가지는 가설이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로 극복될 수 없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약속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지난 삼백년 동안 지상에 몇 개 안되는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사탄의 왕국의 신하들로서 간주되어야 했다는 것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침례를 단지 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 속에 몸을 외적으로 침수시킬 때에, 동시에 그리스도 속으로 정신과 마음이 내적으로 침수된다는 것을 모두 믿는다. 게다가 그들은 전자가 후자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 없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뜻에서 그것 없이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언해야 할뿐이다.

여전히 본인의 견해는 형제들의 행동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또 그것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침례를,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의 타고난 시민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성화와 위안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

든 사람에게 되풀이 가르치는 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적인 만족을 위한 것 말고는, 이 세대의 모든 차이들에 관한 우리의 견해들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가 확실히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 자신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법령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신부터 칭찬을 받는다. 문제가 된 기사에서 인용된 성구들은, 기고자들 가운데 한 분이 잘 지적한대로,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설명이 이 문제에 관한 만족할만한 답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알렉산더 캠벨(A. C.)

오하이오 리버, 1837년 9월 28일.

###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무실에서 받은 많은 서신들로 판단해 보건대, 루넨버그 자매에게 회신한 본인의 글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었고, 교파교단의 친구들에게는 얼마간의 기쁨을 주었다. 교파들을 형성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만큼이나 안전하다” 또 “당신들은 이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이를테면, 침례가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건너오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해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중립화시켰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한 총체적인 주제에 관한 시대의 무지와 과오와 무관심에 대항하여 싸웠던 무기들의 상당수를 그들에게서 해제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론주의(opinionism)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본인에게 교리화시키는 것과 나 자신의 견해를 확립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의 수백 통의 서신들을 출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단 한가지 중요한 점만이 이 서신들을 출판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신들에 할애할 지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소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이 나라에 캠벨주의자들(Campbellites)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까지 지역사회의 눈들을 진실로 충분히 뜨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고자들이 나의 의견이 거짓되고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캠벨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내게 썼던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나의 견해를 교리화 시킬 의사가 전혀 없고, 그 의견 자체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지만, 아래의 세 가지 내용만큼은 꼭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의무.

둘째, 교파주의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견해를 방어해야 할 의무.

셋째,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개진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야 할 의무.

1.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일찍이 싸워왔던 어떤 것도 양보했거나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문제가 된 그 견해야말로 진실이든 거짓이든 본인이 언제나 공언해 왔던 것이란 점을 아주 신속하게 서둘러 입증해 보이겠다.<sup>12)</sup>

(1) 우리가 사도적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해서 써왔던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연합했다고 우리가 가르쳤는가?

12).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죄사함을 위한 침례만큼 오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 작품의 창간호와 두 번째 호를 읽어보시오.

(2) 그리고 둘째로, 만일에 우리가 허약한 우리들의 친교집단 이외에 주께서 더 이상의 백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상상했다면, 성령께서 바벨론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하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sup>13)</sup>고 하신 말씀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인용했으며, 배교적인 기독교계에 적용했는가?

(3)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1825년 4월호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sup>14)</sup>에 실린 다음의 글을 읽기 바란다. “교파들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로 연합하는 것을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와 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이성과 선행이 그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 사이에 흩어진 제자들뿐이다.” 이것은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입장인 현재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제2쇄, 『베다니』(Bethany), 85쪽.

(4)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언어구사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분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방침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어떻게 각 파가 자신들을 유지해 갈지를 종종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편 그들의 가시적인 불일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1827년 3월호, 제4권.

(5) 기고자들이 보내준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많은 기사들과 서신들은 우리의 지지와 함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 중 하나 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몸의 참 지체들이며, 참 포도나무

13). 역자주: 계시록 18장 4절.

14). 역자주: 『그리스도인 침례자』는 알렉산더 캠벨이 1823년부터 1830년 5월까지 7년간 발행한 잡지이다. 1830년 1월부터 1866년까지는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지가 캠벨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의 가지들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1826년 10월호, 제4권, 53쪽.

(6) 1826년 8월 스펜서 클락(Spencer Clack)에게 보낸 서신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의 최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것도 반대할 것이 없다. 본인은 모든 분열과 현존하는 모든 당파심을 진심으로 개탄한다. 그리고 만약에 본질적인 토대 위에서(constitutional grounds) 모든 분열들을 고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것 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이 대륙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도보로 수백 마일을 걸어서 그 분을 만나 뵙고, 나의 과오를 고백하겠다.” 제5권, 15쪽.

(7) 오웬과 토론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 저녁에, 1829년 4월 6일, 제6권, 239쪽, 그 위기를 암시하면서 본인은 말한다. “모든 교단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소원과 기도와 소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기뻐한다.” 그래서 수차례 『그리스도인 침례자』지에 언급하였다.<sup>15)</sup>

(8) 이 주제에 관한 『천년왕국 예고자』지의 견해들은 「회복된 기독교」(Christianity Restored)란 제하의 글들 속에 농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방침들에 관련된 견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할 기초에 관해서」(of the Foundation on which *all Christians may form one communion*)란 제하의 글들을 참고하시오.

(9)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한 기초에 관한 긴 기사가 실린 그 책에서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입증이 될 101쪽부터 128쪽까지의 내용 전체를 추천한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일컬어 하나님

15).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 침례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독립 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에 회신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보기 바란다.

의 모든 자녀들을 어느 날 한 곳으로 모을 중축(中軸)이라고 말하고 있다(102쪽). “교파들이 정말 그치겠는가? 한 주님아래, 한 믿음 안에, 한 침례 안으로 모든 제자들이 연합될 때가 정말 오겠는가? 분열들이 정말 치유되겠는가? 지상의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 정말 그치겠는가?”

(10) 첫 증간호 혹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유아세례자들의 기독교의 허약함으로부터 “이 구원을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는 자들, 죄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거나 거절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정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복음에 관한 그들 자신의 정의에 따라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한다. 제1호, 『임시 증간호』, 제1쇄, 53쪽.

이와 같은 열 개의 증거들과 논박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이 입장을 바꿨다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들을 매우 확실하게 오해하지 않았는지를, 본인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열 개의 증거들을 우리들이 손쉽게 백 가지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2. 이제는 우리의 견해를 교파주의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변호 하겠다.

(1) 우리의 견해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위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해가 침례를 받지 아니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도 전혀 죄사함이나 구원의 확실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근거해서, 침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견해에 대해서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견해를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자신

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견해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완강하게 또 자발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수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견해에 의해서, 그는 그것에 숨겨진 어떤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된다. 그의 기쁨은 진정으로 그를 반대하여 강하게 추정되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느낌들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울골은 마음 즉 그 견해를 심사숙고해 볼만한 그런 마음은 적어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제에 관해서 자기 자신들과 어떤 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혀 사전지식 없이 자신들이 침례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만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일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뿌림을 받고, 부음을 받고, 물 속에 잠김을 받은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뿌림을 받거나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성(다른 모든 것들은 동등하다 할지라도)과 처음부터 믿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따라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동등한 것이 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인간의 부족한 추론과 견해를 가질 뿐이지만, 후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구세주와 재판장의 확실하고 무오한 약속을 갖고 있다.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싫어서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유아 혹은 성인 때의 뿌림이나 부음의 세례를 주께서 인정하실 것이라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는 문제가 된 그 견해를 심사숙고하는 마음의 상태가 옳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과 하나님의 뜻과 즐거움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임을 입증했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호감 가는 견해도 가질 수 없다.

(2) 그러나 전술한 견해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지와 과오와 무시에

대항하여 벌리는 논쟁으로부터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그 사람이 그 주제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충분한 범위에까지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고, 또 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회들을 따라서 그가 태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견해의 말 때문에, 오로지 의심하는 자, 혹은 그의 침례가 사도적이고 신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당화되지 못하며, 스스로 정죄된다.

(3) 신약성서의 모든 진보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유대인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제도의 최상의 가치와 우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향, 상태, 그리고 특성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지성적으로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만큼 칭의나 죄사함에 관한 확신을 완전하게 갖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은 침례 받은 사람들에 의한 것만큼, 다른 모든 것은 동등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히 결단코 즐거워할 수 없다.

(4) 또 모든 교파가 동의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기독교계의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침례의 방법으로서 어떤 다른 행동의 가능성을 인정할 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협동을 위해서, 신성한 제도를 존중하며, 길을 개방하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란 점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그 밖에도, 침수세례는 예수의 우주적인 왕국에서 타고난 시민의 권리를 수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과 함께, 그들 자신들이 재판장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세례”가 단지 그 왕국의 일부 지역들에서만 시민의 권리들을 수여한다. 침례에 관한 한, 동방교회(the Greek), 가톨릭교회(the Roman), 성공회(the

English), 루터교회(the Lutheran), 칼뱅주의(the Calvinian), 아르미니안주의(the Arminian), 그리고 침례교(the Baptist) 공동체들이 침수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오직 일부분만이 뿌리거나 붓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도 침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단지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향도 아니고, 특성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알고고도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시킨 그 견해의 본질에서 개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어떤 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의 공언이 기독교 제도 속에 있는 침례의 가치에 관해서 지지 혹은 모독하기 위한 논쟁을, 혹은 예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중요성과 필요성의 논쟁을, 혹은 전능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한 유명한 선지자의 요구에 지체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치게 하는가?

3.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신교 교단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문제에 관해서 이 글이 실린 최근호에서 인용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한 자매로부터 간청을 받았다. 그녀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거나 그 내용에 강하게 반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질문 목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이 그녀의 모든 질의에 무슨 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질의들에 대해서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본인 생각에 전술한 내용에서 그녀가 느꼈을 난제를 해설하였던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는 이 자매가 가진 난제들보다도 일부 형제들이 가진 편견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될 더 화급한 이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타교파를 비난하고, 그들을 통틀어서 구원의 가

능성이 전혀 없는 외인들로서 또는 적그리스도적이며 부패한 집단으로 단정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자, 주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본인은 호기심이 강한 이 자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주 열렬한 이들 형제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중의 모든 사적이고 사회적인 덕행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침례를 구세주로 만든다든지 혹은 천국 가는 여권으로 만들고 있다는 교계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므로, 본인은 그들 자신의 것만큼 강하고 신랄한 말로 그들에게 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좌익에서 중도로 이끌고자 했다.

그 경우는 이렇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형제우애, 동정, 그리고 활동적인 자선행위는 그의 상황들 말고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집회 때마다 그의 자리는 결코 빈자리로 남아 있지 않으며, 그의 내적 경건과 헌신은 알려진 모든 책임에 세심하게 복종함으로써 증명된다. 그의 가족은 주를 경외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고, 그의 항구적인 친구는 성경이다: 어떤 사람이 결코 문의는 하지 않았으나, 그가 성서적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덕행들이 크게 부족됨으로서, 그의 주된 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침수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복음에 관한 성서적인 이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간주했기 때문에, 이교인이나 세리로 분류된 그와 같은 사람을 본인이 볼 때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고픈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를 그의 잘못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명령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보는 교파교단의 가장 훌륭한 신자를 인도하는 대신에, 나의 침수세례 형제에게 바울이 그의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겠다. 그 유대인은 그가 만들지 않았던 한 체계를 찬양하였다: ‘선생님, 그의 무할레나 무침례가 그에게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신이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당신의 왕의 성문울을 범하거나 태만히 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3) 우리는 세 번째 이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파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왔다. 본인은 과거 일 이년간 이 인상을 지우려고 애썼다. 본인이 아는 것은, 백 명의 형제 중에 한 명 정도가 낚새를 채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 관해서 본인은 더욱 서슴없이 개신교주의를 방어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 진술하려는 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우리가 억지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려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것과 그들이 일컫는 대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컫는 대로, 그들이 이 커다란 “분열”의 원인이란 점을 개신교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자, 이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펼쳐 보였으니, 그가 양보라고 주장했던 것의 의미를 검토해보자. 그리고 본인이 먼저 물겠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위기의 때에 분열을 만들도록 야기시킬 수 있었는가? 혹은 매우 강하게 그것을 반복하자면, 본인은 좀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논쟁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게 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논쟁에서 잃은 것이 없다. 완벽한 자유의사에 따른 제시에 대해서는 “양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동의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위치를 부러워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들의 기반을 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처럼 단순히 우리를 새로운 교파로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래적인 복음적 제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개종자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랄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는다. 믿음,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양자 됨과 하늘의 부르심

의 모든 약속들은 교파교회의 강단과 지푸라기 즉 통곡의 벤치, 근심의 자리, 그리고 회심을 이끌어내는 다른 모든 현대식 방법들(paraphernalia of modern proselytism)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그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또한 이론적이라는 점은 개신교 교단들의 가장 분별력 있고 믿음이 깊은 부분들에 앞서는 전례 없는 진보들의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매우 착실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신약성서 교회를 부르짖는 우리와 같은 교파는 이 땅이나 조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모든 주와 이 거대한 연방제 영토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조차도 매우 성공적으로 알려졌다.

모든 반대 조직들에 대항해서 총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부족한 모든 것은 충분한 수의 지적이며 일관된 주창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험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많은 체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위선 그리고 사악함 때문에, 그리고 일부 선한 형제들의 경솔함과 경거망동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이 매우 만족스럽게 증거 하는 바와 같이, 해마다 지탱해왔고 점증하는 부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고 배타적인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양보하는가? 우리가 그와 같이 육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다른 교파에도 구원의 가능성 있다고 양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견해의 신선한 이 모든 사실들과 논리적 근거들로서 본인은 묻는다. 그와 같은 양보가, 즉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 따른 제시가, 기독교계에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비방에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대답할 수 없는 논박이 아닌가? 몇몇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양보를 했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파당심이 강한 견해들과 감정들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비난과 질책에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에) 침묵을 지켜야 할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

인 그와 같은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

동료 사역자들의 일부분은 친근책(approaches)이 질책(reproaches)보다 더 주님의 방식에 부합되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호의적인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화친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며,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게 입증했다. 많은 개신교 교사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들과 연합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성서 하나에만 이르게 되는 때는 언제든지 확실히 우리들에게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된다. 침례교인들과 유아 세례자들도 개혁의 필요성을 날마다 점점 더 느끼고 있고, 우리의 견해가 해마다 대중의 마음을 점점 더 확실히 사로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버지니아주 동부에 사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견해의 매우 강한 표현을 적어도 이 때에 이끌어 내야할 호기를 맞았다. 그리고 전술한 견해에 관해서 우리는 현재 사분의 일 정도의 많은 서신들을 그 지방에서 받고 있다. 그들 중에 일부가 크고 불합리하게 교과들을 악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부 몇몇 다른 지역에서 몇몇 사람이 기독교를 보편적인 성결에 좌우되기보다 침례에 더 좌우되게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와 방법으로 루넨버그 자매에게 회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네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1. 신약시대 특히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 말의 본래적이고 성서적인 뜻을 엄격하게 배려한다면, 본인이 좋아하고 종종 언급했던 정의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다.<sup>16)</sup>

2. 그러나 그 말의 전국적이고 매우 인기 있는 의미는 다만 기독교

교의 신앙고백자(professor)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교나 이슬람교 국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 정치집단이나 철학의 학파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교파들이 있다.

3. 그러나 새롭고 특별한 혹은 적절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입는 방법과 수단에 관해서 혹은 그의 종교적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논쟁들이 발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 속에 장사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그러나 본인이 사용했고, 루넨버그 자매가 처음 문제삼았던 문구 속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대로, 일부는 신앙고백을 바로 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잘못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Adam Clarke)는 어떤 시 구절을 인용한다.

모두가 선포하는 너 다른 교파들이여,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시다!  
너의 강한 증거들이 신성하게 수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자, 이런 내용대로라면, 대개의 개신교 교단 속에는 내가 바라건대 주께서 용서하실 실수나 과오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지상 왕국의 모든 축복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도, 본인은 그들이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즐거이 기대한다.

유대인, 이스라엘, 할레, 제자와 같은 말들은 성경 속에서도 같은

---

16). A Christian is one that habitually believes all that Christ says, and habitually does all that he bids him.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sup>17)</sup>—“진실로 이스라엘인”—“참된 할례”—“이면적 또는 표면적 유대인”—“그러면 진실로 너희가 나의 제자이다,” 등.

우리의 형제들이 올바른 방법이라면 애써 지키려하고, 식별력 있고, 매우 독립적인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그들은 성서적인 이름들에 따라 성서적인 것들을 호칭하는 습관이 매우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그들은 그 말을 가장 엄격하게 성서적인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뜻에 따라서 그 말을 사용했던 본인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본인은 마지막만큼 쉽게 처음에도 우리 자매의 질문에 이런 회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그 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요구됐던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본인은 잘못되지 않았다. 본인이 이 안에서 더 유용하고 유익한 과정을 추구했던 모두에게 그것이 아직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본인의 의견으로, 우리의 동부 형제들은, 그들이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거의 갖기도 전에, 그들 자신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성급하고 다급했다. 그들이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신속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인은 매우 자주 이름이 거명된 훌륭한 자매가 거론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은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고,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누가, 모두는 아니고, 이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해설을 수반하는 글들을 신기를 원한다면, 본인은 계획에 따라 그것들 중에 일부를 출판할 의무를 진다.

본인은 그들이 성급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진정으로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시간 너무 늦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한 시간 매우 빠르게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몇 가지 해결책들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미숙했다고 생각한다. 거룩한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며, 그들에

---

17). 역자주: 로마서 9장 6절.

계 모든 일에 깨우침을 주시기를!

알렉산더 캠벨(A. C.)

## 5.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

글: 조동호

###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단에서는 알렉산더 캠벨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환원운동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캠벨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서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그가 쓴 일차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침례론에 대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캠벨의 침례론에 대한 이해는 곧 그의 중심 사상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침례론은 그가 평생을 바쳐 회복하려고 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교회 일치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토마스 캠벨의 아들이며,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활동한 훌륭한 신학자요, 교육가요, 저술가요, 사업가요, 토론가였으며, 환원운동을 주창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였다.<sup>1)</sup> 캠벨은 성서 번역 사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을 남긴 신학자요, 베다니 대학을 세우고 가르친 교육가요, 출판사와 농장을 경영한 사업가요, 양의 품종까지도 개량한 영농가였으며, 무신론자이며 협동조합의 창시자인 로버트 오웬과의 토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토론회를 벌인 토론가 였다. 그는 칼뱅이나 요한 낙스, 요한 웨슬리 또는 마르틴 루터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

---

1).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부친의 이상적인 교회연합이 자기 교회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인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스트 미들타운(West Middletown)에 세웠다.

마르틴 루터가 성서에서 멀리 벗어난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성서로 돌아가는 개혁을 시도했다고 하면, 알렉산더 캠벨은 개신교회의 분열로부터의 연합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과잉반응에서 비롯된 비성서적 성례전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심혈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전혀 교회의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 언어적, 의식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갈라진 동서방교회와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양상과 같은 정통교회들의 심각한 분열의 양상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sup>2)</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 캠벨은 긍정적인 면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성서의 권위회복의 정신을 계승했고,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한다”는 칼뱅의 성서중심주의를 환원운동의 정신으로 삼았다. 또 그는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배타주의적인 독소로 야기되는 개신교회들의 분열주의를 지양하여 교회일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인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이 교회일치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아들인 알렉산더 캠벨은 성서의 권위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토마스 캠벨이 재직하였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편협한 당파 의식과 성서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1528년 2월 29일,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의 순교 후에 개혁교회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60년, 요한 낙스(John Knox)가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일련의 정치적 종교적 전쟁들을 치른 후에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로서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그 유명한 국민 계약에서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배타적으로 칼뱅주의를 고수할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1643년 그 계약이 정치적으로 수

2)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성령의 근원을 찾는 문제로 발전되었으며, 특별히 성령을 “아들로부터 발출(procedit)하셨으며”란 말로서 고백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서 589년 동방교회가 제외된 Toledo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filioque(=and the Son)란 단어를 첨가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1054년 동서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정 해석되었고, 그것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자들(Covenanters) 혹은 개혁 장로교인들(Reformed Presbyterians)이라는 이름하에 독립된 교회와 조직체(societies)를 구성하였다. 그 후에 국가가 교회의 동의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을 때, 알렉산더 에르스킨(Alexander Erskine)과 몇몇 목회자들이 1733년 국교와 분리하여 분리 장로교회(Seceder Presbyterian Church)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 교단은 시의원들에게 요구되고, “국가 안에서 현재 인정된 종교”(the religion presently professed within the realms)를 지원토록 그들을 제한하는 서약이 자신들이 대항하는 국교 내에서 악습을 허용하는가의 문제로 1747년 갈라졌다. 서약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공민파”(Anti-Burghers)가 되었고,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은 “공민파”(Burghers)가 되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179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3장과 본래의 국민계약서에 주장된 시의 종교문관들(civil magistrates in religion)의 권한 문제로 “공민파”는 “옛빛 공민파”(Old Light Burghers)와 “새빛 공민파”(New Light Burghers)로 나뉘었고, 반공민파는 “옛빛 반공민파”(Old Light Anti-Burghers)와 “새빛 반공민파”(New Light Anti-Burghers)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캠벨이 속해 있던 교회는 아이랜드의 옛빛 반공민파 분리 장로교회였다. 공민파의 서약은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논쟁들이었으며, 아이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구적으로 분리되기를 고집하였다.<sup>3)</sup> 이러한 분열현상은 미국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토마스 캠벨이 미국에 건너와 발견한 것도 그가 북 아일랜드에 있을 때에 경험한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도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캠벨 부자(父子)는 교회일치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터가 중세기 가톨릭교회로부터 탈퇴함으로

3).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p. 37.

서 회복하고자 했던 성서의 권위문제를 캠벨은 역으로 성서의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분열된 교회의 연합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개혁가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문제들로 개혁을 추구하고 노력했지만, 개혁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침례를 중요하게 거론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중엽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성례를 성서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그 뜻이 있었고, 알렉산더 캠벨은 19세기 초 개신교회들의 잘못된 성례를 성서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일치의 방법으로 성서적인 침례의 방법과 대상자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서적 진리 속에서 일치를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정신은 루터교회가 계승했고, 캠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 or Church of Christ)가 계승하고 있다.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그는 『기독교 침례인』(*Christian Baptist*)이란 잡지를 출간하였으며, 이 잡지에서 7년간이나 침례론을 논하였고, 여기서 논한 글들을 모아 『기독교 침례인』(*Christian Baptism with Antecedent and Consequents*)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침례에 관한 주제로 여러 번의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그 기록들을 모아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는 또 제 2의 잡지인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를 출간하였고, 이 잡지에서도 30년 이상을 침례에 관한 글을 쓰고 또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타 교단의 목회자들로부터 “물 중생론자”(Water Regenerationist)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을 얻기도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특수성을 부여하고 많은 유익한 유산과 전통을 남긴 훌륭한 신학자였다.

## 침례의 대상(유아세례에 대한 견해)

그러나 알렉산더 캠벨은 장로교회 목사였던 아버지 토마스 캠벨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고, 적어도 1812년까지는 기독교 침례인은

아니었다. 캠벨은 1808-1809학년도에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수학하였는데, 그곳에서 할데니안(Haldanean)들이<sup>4)</sup> 수침 하는 것을 접할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례에 대한 그의 첫 반응은 1810년 11월 1일 피츠버그 장로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유아세례가 비록 성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할례가 초대교회 당시 관용의 문제였던 것처럼 취급되어야 하며, 결단코 무시해 버릴 문제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sup>5)</sup>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1837년에도 나타나고 있다. 캠벨은 그가 쓴 「개신 교단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란 기사에서 약식세례가 성서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 정직한 충성심으로 교파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고 지속적인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다고 피력하고 있다.<sup>6)</sup> 그가 유아세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는 다른 교단 내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한 것이다.<sup>7)</sup>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는 장로교회의 라이스(N.

4). 로버트 할데인(Robert Haldane/1764-1842)은 스코틀랜드의 부흥목사요, 저술가요, 박애주의자였으며, 할데인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의 단체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섬겼으며, 개 교회의 정치는 다수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중주의였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배제하고 침수를 베풀었으며,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였다. 이런 점은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의 같다.

5).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A View of the Origin, Progress and Principles of the Religious Reformation Which He Advocated, vol. 1*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6), p. 345. 성서시대에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용되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예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전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나 사도들이 회당예배에 참석하였고, 또 그것을 복음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유아세례의 경우도 할례나 회당예배와 마찬가지로 관용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1837): 411-578; reprinted in *Lunenburg Letter*(Lincoln, Illinois: Lincoln Christian College, March 1970), p. 5.

L. Rice) 목사에 의해서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1837년부터 1840년까지 계속된 루넨버그 서신 논쟁으로 비쳐 볼 때, 라이스 목사의 이 불평은 정당한 것이 못된다. 아무튼 그는 1843년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캠벨과의 공개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심하게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미수침자들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그는 그것을 그의 사건으로서 가능하다는 말을 이탤릭체(Italics)로 기록하면서 매우 근접하게 끌어왔다. 그의 선심(charity)은, 그것은 처음에 다소 값비싸게 나타났지만, 단순한 가능성 정도로 위축되었다.<sup>8)</sup>

1849년 3월 캠벨은 다시 언급하기를, “나는 이 의식에도[유아세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sup>9)</sup>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캠벨은 유아세례를 비성서적이며 인위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믿었다.

한편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브러시 런 교회는 최초의 결신자 세 사람을<sup>10)</sup> 놓고 세례의 방법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의<sup>11)</sup> 원칙에 따라 침수로 베

7). Lunenburg Letter, p. 9.

8). Alexander Campbell, e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917), pp. 562-563.

9). *Millennial Harbinger*(1849), p. 131.

10). 결신자 세 사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Margaret Fullerton, Abraham Altars, and Joseph Bryant.

11). 『선언과 제언』은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이 초안하여 발표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된 56쪽의 소책자이다. 『선언과 제언』에서 강조된 내용은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결성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 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일치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치를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

풀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 줌의 흙으로 시신을 매장할 수 없는 것처럼 몇 방울의 물 뿌림으로 죄인이 장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1811년 7월 4일 버팔로 냇가(Buffalo Creek) 깊은 물에서 최초로 침수세례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침례자였던 토마스 캠벨은 미침수자였기 때문에 첫 침례는 정통성의 문제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첫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헬라이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며 깊은 연구에 몰입하였고, 유아세례가 성서적이 아닌 인위적인 전통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재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8년 후 알렉산더 캠벨은 유아세례야말로 “인위적 전통이며, 건전한 공동체에 유해하며, 종교적이지요, 정치적이다”라고 1820년 6월 요한 워커(John Walker)와의 공개토론에서 주장하였다.<sup>12)</sup>

또한 캠벨은 1849년 3월 『천년왕국 예고자』지에서 침례에 대해서 134개의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그는 유아세례가 “믿음의 결핍”<sup>13)</sup> 때문에 그리고 “옳지 못하기”<sup>14)</sup>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유아세례가 왜 옳지 못한 것인가를 네 가지로 거론하였다. 첫째, 유아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 접근이다. 둘째, 유아세례는 “세상의 문들만큼이나 교회의 문들을 넓히는 것이며,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품안에 수용하는 것이다.”<sup>15)</sup> 셋째, 유아세례는 결신자 초

---

하였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현장이다.

12). Alexander Campbell, ed.,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3rd enlarged ed.* (Pittsburgh: Eichbaum and Johnston, 1822), p. 141.

13). *Millennial Harbinger*(March 1849), p. 129.

14). *Ibid.*, (September 1948), pp. 481-492.

대에 결정여부를 “행사할 양심의 자유”를 사람들로부터 박탈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세례는 박해정신을 획일적으로 주입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 캠벨은 유아세례를 옹지 못한 인위적이며, 변질된 형태의 교회전통<sup>16)</sup>으로 보고 거절하였다. 자기 자신은 재침례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받은 유아세례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캠벨은 구원에 관한 한 좀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며, 유아세례를 받은 자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이들을 “경건한 미침수자들”(pious unimmersed)이라고 불렀다.<sup>17)</sup>

이러한 견해는 마르틴 루터가 언제나 침례를 선호하고 또 그것을 옹다고 보았으며, 심지어는 유아까지도 침례를 베풀었으나, 유아세례 그 자체를 강력하게 인정한 점에 비교해 볼 때 캠벨과는 의견을

15). 서구사회에서는 오랜 기독교의 영향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유아를 교회에 데려가 아무 믿음 없이도 세례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세례이해는 유아세례의 성례전적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한신대의 박근원 교수는 『기독교 사상』 1991년 8월호에 실린 그의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라는 글에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유아세례야 말로 서방교회 전통이 만들어 낸 최대의 과오라고 지적한 바 있고, 에밀 부르너와 위르겐 몰트만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그는 유아세례 제도야 말로 서방 기독교가 몰락하는 주요 원인이며, 누수의 진원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런 서구교회의 모순이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교회의 누수현상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6). 유아세례가 시작된 A.D. 200년경 이전까지는 성서나 초대교회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다. 물론 A.D. 200년 이후의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나 키프리안 같은 감독은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오리겐은 유아세례의 기원을 사도들의 전통에 두고 있지만 사실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례는 피침례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2:37-38; 8:6-12, 35-38; 9:4-18; 10:33-48; 16:13-15, 32-33; 18:8; 19:1-5).

17).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1837), pp. 411-578. “Editorial,”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8, 1985), p. 3.

달리한다. 캠벨은 유아 자신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중요시하는 데에 비해서, 루터는 유아가 다른 사람들, 즉 세례를 받게 하려고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도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유아세례 전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캠벨이 형식과 수세자의 믿음을 더 중요시한 반면, 루터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믿음보다는 침례에 나타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sup>19)</sup> 캠벨은 교회전통보다는 성서를 우위에 두고 성서중심에서 유아세례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는데, 루터는 유아세례에 대한 교회전통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자신도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는 원죄를 위함이 아니고 자범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원죄는 이미 제 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살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아는 사죄함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인간 의지의 속박과 원죄를 믿었기 때문에 유아 자신의 신앙은 없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유아도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믿었던 것이다.

『리마문서』에서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리겐의 입장을 따라 유아세례가 사도시대의 전통이 였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는 반복될 수 없는 행위이다. ‘재세례’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집례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다.<sup>20)</sup>

18).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pp. 186-187.

19).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pp. 186-187;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Garden City, NY: Anchor Book Doubleday & Company, Inc., 1961), pp. 228-233.

20).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WCC, Geneva, 1982), 13항.

캠벨은 침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 믿었다.<sup>21)</sup> 그러므로 이 성례는 “기독교인 침례(Christian Baptism)이다.<sup>22)</sup> 그리스도의 대명령은 “기독교 침례의 율법이며, 제정이며, 기원”<sup>23)</sup>이다. 캠벨은 침례를 항상 세 가지 다른 주제들로 구별하여 논하였다. 이들은 침례를 베푸는 방법(Action), 대상(Subject), 그리고 목적(Design)이다. 그는 말하기를 “대상과 방법과 목적이 존중될 때, 한 침례 안에서 일치가 가능하다”<sup>24)</sup>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캠벨은 “예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고안(design)을 위하고, 어떤 행위(action)의 대상이 될 어떤 인물(character)을 명령하셨다”<sup>25)</sup>고 믿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에 관한 이들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무려 40년 이상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이 분야에 관하여 헬라어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였고, 고전 문학이나 교부들의 저술들, 종교개혁가들의 저술들, 당대의 논문들과 번역본들, 역사적 변천 과정 등 모든 가능한 연구들을 철저히 탐구하였다.

그러나 캠벨의 성서중심주의적 정신은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친 토마스 캠벨이 추구했던 교회연합의 측면에서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회연합의 문제는 기독교가 성취해야 할 가장 큰 이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방법이 포괄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배타주의는 복음의 특수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서이해와 해석에 따라서 분열될 수밖에 없고, 종교다원주의는 복음의 특수성을 저버리고 보편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기독교의 특수성을 살리고 보편성을 인정하는 포괄주의는

21). *Millennial Harbinger*(November 1849), p. 601.

22).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 and Consequents*(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p. 172.

23). *Christian Baptism*, p. 173.

24). *Christian Baptism*, p. 188.

25).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Nashville: Gospel Advocate, 1974), p. 39.

캠벨에게서 희미하게 나타날 뿐이다.

## 침례의 방법

방법문제에 있어서 캠벨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믿었다.<sup>26)</sup> 오늘날 어떤 교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침례 방법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치 않고 있으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성서해석상에 있어서 예수의 계시가 다른 계시보다도 월등하다거나 더 큰 권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침례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이시며, 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신 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이다.<sup>28)</sup>

방법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침수이다. 침수가 성서시대에 행했던 방법이며, 언어학적인 지지를 받는다. 물론 침수 그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요즘같이 인스턴트 식료품과 웨스트 후드 (fast foods)에 인이 박힌 세대가 진정한 의미의 침례를 경험하고 온

26). *Christian Baptism*, p. 85.

27). 사도행전 2:38; 8:16; 10:48; 19:5; 22:16을 참고.

28).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물에 앉으면 물을 붓는다든지, 침례 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으로 세 번씩 몸을 굽혀 물에 담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번, 아들의 이름으로 한번,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씩 도합 세 번씩 침수를 했던 것이다. 지금도 회랍 정교회에서는 물 속에 세 번 들어갔다 나온다. 요한의 침례가 예수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베풀어진 침례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강조함으로써 이 침례가 그리스도인의 침례임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의 명령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는 것이 더욱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갓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의 삶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물 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에서 나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삶을 경험하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 되는 참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구원의 경험으로서 갓는 평생에 한번 있는 세례는 반드시 침례를 통해야 함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원의 시간으로서 갓는 침례의 의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선행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씻음에서 발견된다.

루터도 침수세례를 인정하였다.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 루터는 말하기를, “침례는 오히려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 이따라서 나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물 속에 담기게 하고 싶다. 이것은 그 낱말이 나타내고 그 비밀이 표시해 주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고 완전한 것에 완전하고 철저한 표징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29)</sup> 그러나 『리마문서』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세례는 공중예배 때에 베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부활절이나 오순절 또는 현현절에 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을 뿐이다.<sup>30)</sup>

한편 캠벨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침수가 옳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침례라는 말의 어근은 bapto로서 침례나 침례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sup>31)</sup> 헬라 철학자들이나, 역사가들, 웅변가들, 또는 시인들은 물론 사전 편찬자들까지도 한결같이 이 말을 ‘담근다’, ‘가라앉히다’, 또는 ‘치넣다’라는 뜻으로 표시하고 있다.<sup>32)</sup> 또 고대의 번역서들이나 현대의 영어 번역서들에서도 한결같이 침수의 의미로 번역되고 있다.<sup>33)</sup> “고대교회는 수침을 행하였다. 그리고 침례가 행하여

29).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pp. 181.

30).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23항.

31). *Christian Baptism*, p. 85.

32). *Christian Baptism*, p. 90.

진 곳은 강이나 호수나 탕과 같은 물이 많은 곳이었으며, 이것은 뿌리거나 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4)</sup>고 말하고 있다.

## 침례의 목적

1822년 알렉산더 캠벨은 비로소 침례의 목적이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그는 이 점을 1823년 10월 마칼라(W. L. Maccalla)목사와의 공개토론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 때 그는 물은 형식적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질적으로 죄를 씻는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성경에 형식적 죄사함과 실질적 죄사함에 대한 구별은 없다. 하지만 외형적 시각적 시간적 구원의 개념에서는 형식적 죄사함이 성서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없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5년 후인 1828년 그의 『기독교 침례인』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침수는 대상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였고, 침수는 “형식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가져온다고 적고 있다.<sup>35)</sup> 캠벨은 5년전 공개토론에서 밝힌 그의 견해를 이곳에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수를 매체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지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형

33). *Christian Baptism*, p. 101, 105.

34). *Christian System*, p. 41. 북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안 감독은 A.D. 250년경에, 그가 비록 약식세례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침수로 하지 않은 세례를 최초로 약식이라고 칭하였고, 약식세례를 받은 사람이 합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의 의문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3세기 초 칼타고의 터툴리안이나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들의 전승』에 나타난 침례의식을 보더라도, 피침례자가 별거벗고 세 번씩 물 속에 몸을 담갔고, A.D. 9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하라고 권하였고, 침수할 물이 없을 경우에만 세 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침례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붓도록 권하였다.

35).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1828): reprint ed.,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5), p. 128.

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적고 있다.<sup>36)</sup> 그리고 2개월 후 캠벨은 그의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은 글에서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것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된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날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날이며, 침례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sup>37)</sup>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침례의 시간적 개념이다. 침례의 형식적 개념은 시간적 장소적 개념으로서 이해되는 한편, 침례의 실질적인 효력은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속에서 파악된다. 1849년 캠벨의 『천년왕국 예고자』지에서도 이러한 견해는 쉽게 발견되고 있다. 캠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침례는, 그러므로 그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형식이요 표현이다. 이 행위에서 신자의 마음과 정신은 능동적이지만 몸은 수동적이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사적인 영광과 공식적인 충만함 속에서 그를 덧입고 수용하는 신성한 형식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복음의 실질적 수용으로서 만들고 간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것 위에서 과거의 모든 우리의 죄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하신다.<sup>38)</sup>

캠벨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원죄나 미래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침례 이전까지의 자범죄를 의미한다. 캠벨도 원죄에 대한 개념은 의식하고 있었으나 침례가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뜻한다고는 믿지 않았다.<sup>39)</sup>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할 만큼 성장치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

36). *Christian Baptist*(April 1828), p. 222.

37). *Christian Baptist*(June 1828), p. 256.

38). *Millennial Harbinger*(1849), p. 611.

39). *Christian Baptism*, p. 202.

졌는가 라는 질문에 캠벨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공덕과 구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sup>40)</sup>고 확신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그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행위가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보다도 더욱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 5장 12-21절의 선 은혜의 교리(Doctrine of Prevenient Grace)를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선 은혜의 교리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던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았고 또 찾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아담으로 인한 원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행위로 인해서 또는 넘치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말살되며, 원죄의 결과인 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정복될 최후의 원수로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믿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불필요한 사족이 되는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도 마가복음 1장 4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같은 많은 구절에 나타난 “에이스 아훼신”(eis aphasis)을 영어로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에이스 아훼신”은 문법적으로 “죄사함 때문에” 또는 “죄사함의 결과로”의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이스 아훼신”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은 아직 없으며, 문맥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에이스 아훼신”은 “죄사함을 위해서”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이며 맥락적이며, 역사적이다. 캠벨도 “그것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얻을 목적으로”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sup>41)</sup>

이런 점은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침례가 죽음과 부활의 상징임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

40). *Millennial Harbinger*(1849), p. 130.

41). *Christian Baptism*, p. 199. 일부 침례교 학자들이 “에이스 아훼신”을 “~때문에” 혹은 “~ 결과로” 해석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조동호, 『성령세례에 대한 성서적 이해』(한성신학교, 1988), pp. 71-78을 참고 바람.

나님의 간주된 의(義) 혹은 칭의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다라고 말하였다.<sup>42)</sup>

『리마문서』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며(롬 6:3-5; 골 2:12), 죄 씻음이며(고전 6:11), 거듭남이며(요 3:5), 그리스도에 의한 계몽이며(엡 5:14),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며(갈 3:27), 성령으로 새로와짐이며(딤후 3:5), 피로 받은 구원의 경험이며(벧전 3:20-21), 속박으로부터 탈출이며(고전 10:1-2),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예로의 해방(갈 3:27-28; 고전 12:13)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sup>43)</sup> 또한 침례는 정수로 몸을 씻는 사면과 모든 죄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함과 칭의의 행위(히 10:22; 벧전 3:21; 행 22:16; 고전 6:11)임을 상징한다고 적고 있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케 되며 성화 된다. 그리고 성례적 체험의 일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새로운 윤리적 의지를 부여받는다고 적고 있다.<sup>44)</sup>

1828년 캠벨은 기독교 침례가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정화의 씻음”에 해당한다고 확신하였고, 따라서 침수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증거 하였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물중생론자라고 공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침례 자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침례를 도덕적 정화의 상징으로 믿었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간적 혹은 장소적 개념으로 침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함께 장사되며, 그와 함께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으며, 새 생명으로 입문하며, 성령을 받으며, 주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한다”<sup>46)</sup>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침례 안에서”(in baptism)라는 어휘이다.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42).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pp. 35-38.

43).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3항.

44). *Ibid.*, 4항.

45). *Christian Baptist*(July 1828), p. 129.

46). *Christian Baptist*(April 1828), p. 222.

사용한 말로서 침례 가운데서 즉 침례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알렉산더 캠벨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혼에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며, 죄사함은 물론 하나님의 가족에 입적되어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받는 즉각적인 시간이며 매개체이다.”<sup>47)</sup>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골로새서 2장 12절과 기타 여러 성경 구절들을<sup>48)</sup> 통해서 볼 때 성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례식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남녀가 혼례식을 거행하는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출산의 개념은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식의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새 생명이 산모의 몸에서 10여 개월 성장해 온점이나 혼례 전에 남녀가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고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때는 출산의 때요, 사랑하는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간도 혼례 때인 것처럼 성화의 차원에서 중생의 거듭남과 죄 씻음은 물론 칭의의 차원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공식적인 시간은 침례 때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디도서 3장 5-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침례 안에서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친히 흘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서 이때에 주시고, 의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부패한 상처를 싸매시는 대 수술을 감행하심으로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재생시키신다. 물론 이 수술작업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총이요, 조건은 신자의 믿음이다. 침례는

47). *Christian Baptist*(July 1828), pp. 254-255.

48). 막 16:16; 행 2:38; 22:16; 롬 6:1이하; 갈 3:27; 벧전 3:21.

단지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침례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알렉산더 캠벨을 물중생론자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침례를 단순히 도구적인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침례의 영향은 그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난 어떠한 공덕 때문이 아니요, 획득 원인으로서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서 하나의 도구나 합의적 원인으로서는 일 뿐이다.”<sup>49)</sup> 1849년 캠벨은 그의 『천년왕국 예고자』에서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죄 은총의 수단이요, 침례는 단순히 사죄에 대한 확신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칭의의 수단이요, 침례의 목적은 “사죄 즉 용서의 서약,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확신”이다.<sup>50)</sup>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엄숙한 인침과 서약과 공식적인 확신이다.<sup>51)</sup> 캠벨은 이 점을 다음의 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된 믿음 가운데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죄사함은 물이나 침수 때문이 아니라, 피침례자가 고백하고 소유한 믿음 때문이다. 침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표지요, 서약이다. 물이나 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침례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인침일 뿐이다.<sup>52)</sup>

이로부터 20년 전 그는 이미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수단 또는 매체로서의 믿음을 피력한 바 있고, “믿음은 진실로 죄사함을 구할

49). *Christian Baptism*, p. 205.

50). *Millennial Harbinger*(1849), p. 62.

51). *Christian Baptism*, p. 205.

52). *Millennial Harbinger*(November 1849), p. 611.

수 있는 근원적 매체이다”<sup>53)</sup>라고 했다. 때문에 침례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침례는 믿음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고백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sup>54)</sup>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믿음, 침례는 상관적이다. 그래서 캠벨은 “칭의, 성화, 양자 됨이 . . . 복음적으로 주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침례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연결된다”<sup>55)</sup>고 했다.

마르틴 루터가 침례에 있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어휘로 보고 설명한 점과 캠벨의 신앙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루터도 성례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으며,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은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침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출발점이다.<sup>56)</sup>

『리마문서』에서도 믿음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침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이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엡 4:13). 모든 교회들은 침례 안에서 구체화되고 착수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sup>57)</sup>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산더 캠벨도 “침례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도, 도덕적 의무도, 도덕적 의로움도 아니며, 단순히 그리스도로 옷입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그분의 인도하심

53). *Christian Baptist*(June 1828), p. 255.

54). *Christian Baptist*, p. 221.

55). *Christian Baptist*, p. 229.

56). John Dillenberger, P. 230; 『루터 선집 제 7 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pp. 181-183.

57).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8항.

아래 말기는 것이다”<sup>58)</sup>고하였다. 때문에 믿음 없는 침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가치하다. 진실로 침례는 믿음에 대한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고백이다. 이는 루터가 약속과 믿음을 떠나 성령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한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침례의 결과로 따라오는 다른 모든 축복들에 대한 “주도적이며 도입적인 축복”<sup>59)</sup>이기 때문에 침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칭의 함과 초기 성화 및 양자권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강사였던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는 이미 1817년 침례를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심지어는 영생을 얻는 장소로 설교했다. 캠벨은 이 때 이미 그의 설교를 듣고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캠벨은 『기독교인 침례』지에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모든 축복을 논하였고, 이들 축복들은 죄 용서함, 칭의, 화목, 성화, 구속, 새 생명, 성령의 내주 하심 등이다.

이러한 견해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신앙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임재 하심을 체험한 것이나 제 3세기 칼타고의 터툴리안이나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의 전승』에서도 나타나 있고, 이레네우스도 증언하고 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 3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등 많은 성경말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리마문서』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받아 드러 침례 가운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sup>60)</sup>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제 3의 인격체이다. 그리고 이 분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원적이고 역동적

58). *Christian Baptism*, p. 229.

59). *Christian Baptism*, p. 205.

60).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5항.

인 원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위한 공덕원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도구적 원인, 침례를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앞서 열거한 성구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4대 요소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은혜를 구원의 바탕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침례를 시간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끝맺는 말

이것이 이제까지 살펴 본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에 나타난 견해이다. 캠벨은 살아 생전에 성서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고, 그 하나로 침례를 택하였던 것이며, 침례의 방법, 대상, 목적을 통해서, 침수를 방법으로, 회개한 신자를 대상으로, 죄사함을 목적으로 할 때, 진정한 성서적 침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법과 대상과 그 목적을 다르게 세례 하는 교단 신자들을 관용의 정신으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서 극단적 구원 논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조금은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의 가르침에는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부족함이 마르틴 루터나 『리마 문서』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고 본다.

『리마 문서』에서는 예수의 침례가 죄인과의 연대감 속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한 자들은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과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할 자로 보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침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이며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자는 항상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갱신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운

리적 의지(a new ethical orientation)를 부여받는다. 이 새로운 윤리적 의지는 순간적인 경험으로서 끊이지 않고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할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며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자는 여기와 현재에 공동책임을 가지며, 인류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 한다. 이 공동증거의 현장은 교회요 세상이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도 상호간의 결속과 일치로 도모한다는 새로운 이해의 차원에서 침례가 설명된다.

루터의 침례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침례에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설명해 준다. 침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외적 표지로서 죄악에 대하여 부단히 싸워야 할 십자군의 입단식이 된다. 침례는 또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義)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침례의 의의가 이 현세적 삶 속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영적 구원의 미완성 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물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육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 된 인간의 본성이 육체와 함께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 죄성을 사멸시키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발전과 자기 개혁 및 성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루터는 침례를 통한 ‘이미’ 이루어진 칭의의 문제와 ‘아직’ 이루어져야 할 성화의 문제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시작된 종말과 미래 종말을 함께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와 타당성을 상실한 미래종말이나 현재적 종말론을 비판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실존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관련된 우주적 사건이며, 침례를 통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미래가 앞당겨져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으로서 세계사의 목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갖게 된 성도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자연,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어두운 이 세계 속에서도 완성될 그 날을 희망한다. 이 희망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즉 이 땅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동참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역군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여 그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백성이다.

침례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죄에 대한 투쟁의 선언이다. 성서가 말하는 죄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대신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단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분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의 표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십자가의 정신이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다. 단절된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악들 즉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졌든지, 인간관계와 인간 공동체의 구조적인 악에서 빚어졌든지, 또는 자연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생태계의 파괴에서 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내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롭게 부활하여 불편한 대신관계, 대인관계 및 대물관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죄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침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된다. 인간의 구원은 통전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기에 침례를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시켜 말할 수 없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은 물론 몸의 구원과 우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루터의 침례론이 주는 교훈은 철저하고 완전한 자기반성과 회개 및 과거의 청산이다. 죄와의 부단한 자기 투쟁을 통해서 완성을 희망하며, 자기 발전과 자기 개혁과 성화를 이루어 가는 새 삶의 의지를 가르친다. 또한 침례를 통한 새 삶의 소유자는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희망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영적 구원에 머물지 않고, 육체의 구원과 우주의 회복을 포함한다. 침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출발점이다. 따라서 침례는 순간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인 개혁과 변혁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분명히 중세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례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성례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지구환경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신에 싸여 있다. 교회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지 오래이다. 변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교회가 안일과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신앙을 고백할 때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고백했던 신앙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탄생하였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통전적으로 또는 전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를 좀더 넓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치 사회적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성례적인 신앙고백이 있어야겠고, 우리의 책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모두가 누룩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

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개혁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분명히 중세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례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성례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마르틴 루터와 알렉산더 캠벨이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례의 능력과 그 정신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 참고서적

- 박근원.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 『기독교 사상』 1991년 8월 호, pp. 172-181.
- 조동호. 『성령세례에 대한 성서적 이해』. 한성신학교, 1988.
-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 7권: 은혜의 해설자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Campbell, Alexander.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 and Consequents*.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 \_\_\_\_\_. *Christian Baptist*. Reprint.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5.
- \_\_\_\_\_. *The Christian System*. Nashville: Gospel Advocate, 1974.
- \_\_\_\_\_. *Millennial Harbinger*. Repri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n.d.
- \_\_\_\_\_.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1837; 411-578. Reprinted in *Lunenburg Letter*. Lincoln, Illinois: Lincoln Christian College, March 1970.
- \_\_\_\_\_, e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917.
- \_\_\_\_\_, ed.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3rd enlarged ed. Pittsburgh: Eichbaum and Johnston, 1822.
- Dillenberger, John,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Garden City, NY: Anchor Book Doubleday & Company, Inc., 1961.
- “Editorial”.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8, 1985.
- Luther, Martin. *Three Treatises*. Phil.: Fortress Press, 1982.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n.d.
- Richardson, Robert.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A View of the*

*Origin, Progress and Principles of the Religious Reformation Which He Advocated*, vol. 1.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6.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7. Modern Christianity: The German Reform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WCC, Geneva, 1982.



## 6.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sup>1)</sup>

글: 조동호

### 들어가는 말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이다.<sup>2)</sup>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을 제외시키고 나면 유대교의 회당예배로 전락 되면서 기독교 예배의 특성은 상실되고 만다.<sup>3)</sup> 기독교 예배가 마치 설교 중심의 예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된다. 말씀의 선포가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처럼 생각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설교 중심의 예배에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의 풍성한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육화(肉化)의 길을 체험할 수 없다.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만찬은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설교는 영적이고, 성만찬은 육적이다. 따라서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의 조화이다.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관계, 곧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다. 설교가 말로써 이루어진다면, 성만찬은 행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설교가 청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다면, 성만찬은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에 호소한다. 설교

---

1). 이 글은 한신 대학교 목회학 박사원 학위논문, 『성만찬 기도와 명상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의 「제 6 장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2).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신학적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제 22권 12호(1978년 12월호), pp. 137-138.

3). 이장식, “예배와 성찬의식,” 『기독교사상』 제 23권 제 2호(1979년 2월호), pp. 63-65.

가 세상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성만찬은 교회를 준비시켜 세상에 봉사하게 한다.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 민중이 가졌던 두 가지 형태의 예배, 곧 회당의 말씀의 예배와 성전의 제사예배가 통합된 형태가 기독교의 예배였다. 또한 기독교 예배는 예수의 전 생애, 즉 가장 위대한 예배의 삶이었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재현이다. 예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말씀의 예전으로 표현되고,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성만찬 예전으로 표현된다. 마르틴 켈러(Martin Kähler)가 복음서를 “긴 서론을 가진 수난사”<sup>4)</sup>라고 지적한 것처럼 예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며, 갈릴리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 예배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sup>5)</sup>

그러므로 설교나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이다. 성만찬은 설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설교는 성만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이 둘이 합하여 신앙인의 지성과 정서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그렇다면, 설교 없는 가톨릭 미사도 절름발이 예배요, 성만찬 없는 개신교 예배도 미완성의 예배이다. 설교 없는 미사는 말씀의 예전에서 단지 설교만 빠지는 미미한 것이지만, 성만찬 없는 예배는 성만찬 예전, 곧 절반의 예배가 빠지는 불구의 예배인 것이다. 중세기 미사 예배는 본래 연출 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만큼, 그 과오가 미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미신적인 요소들의 첨가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

4) 김득중, 『복음서 신학』(컨콜디아사, 1985), p. 97.

5) 장자끄 폰 알멘, 『구원의 축제: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도서출판 진흥, 1993), pp. 17-20, 185-186; 장자끄 폰 알멘,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박근원, 김소영, 허경삼 공역, 『예배학원론』(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pp. 22, 157.

6) 이장식, *op. cit.*, pp. 66-68.

예배는 절반의 예배가 생략된 예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께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한국 개신교 예배의 실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성서적인 측면

성만찬 예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출발된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하신 말씀에서 성만찬 예배는 출발된다.

주후 30년 예루살렘교회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여 성만찬을 행하였다(행 2:42,46; 3:11; 5:12,42; 20:7; 눅 24: 53).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전하고 있고, 46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성만찬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사람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행 20:7) 또는 “먹기 위해서”(고전 11:33) 교회에 갔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과 각 가정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회당예배와 성전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회당의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전의 제사 중심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추방당한 후 독자적으로 예배 예전을 뿌리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회당예배에서 말씀의 예전이 뿌리를 내렸고, 성전예배와 최후의 만찬에서 다락방 예전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초대 교인들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였다. 물론 이 때의 성만찬은 아직 공동식사와 성만찬 예배가 확실하게 분리되기 이전의 애찬 형태의 것이었다(행 20:6-12; 고전 11:17-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언제나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점이다.

주후 56년경 고린도교회는 자주 성만찬을 먹기 위해 모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주의 만찬을 질서 있고 성별 되게 행할 것에 대해서 33절에서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 데, 이 모임은 언제나 “안식 후 첫날”(행 20:7) 혹은 “주의 날”(계 1:10)에 있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관해 충고할 때에 “매주일 첫날에”(고전 16:1-4)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보 할 때가 매주일 첫날이라면, 먹으러 모일 때도 매주일 첫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후 57년에 드로아교회는 바울 일행과 함께 “안식후 첫날에” 떡을 떼는 모임을 가졌다(행 20:6-12).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믿었던 이방인 교회가 ‘안식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예배에는 반드시 성만찬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가 예수의 전 생애를 재현하는 행위라면, 기독교 예배는 성만찬 예배에서 그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독교 예배의 전통이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절름발이 예배요, 미완성의 예배이다.

## 역사적인 측면

매주일 성만찬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1세기 말엽 로마교회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는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

40장과 44장에서 감독의 임무를 성만찬을 집행(ministration)하는 자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의 고유한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이그나시우스도 서머나교회에 보낸 107년경의 편지 8장에서 클레멘트와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감독의 고유한 임무가 성만찬의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여기서 성만찬의 집례를 감독의 고유한 임무로 정한 것은 성만찬이 주일 예배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14장 1절은 “먼저 여러분의 과실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봉헌물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sup>9)</sup>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 지방장관이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트라잔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지역의 교회가 정한 날 새벽 미명에 모여 연도형식(alternate verses)의 찬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십계명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했으며, 흠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없는 음식에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0)</sup> 여기서도 “떡을 떼며”라든지 혹은 “흠없는 음식”이 성만찬과 애찬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애찬 형식의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거행했다는 점이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사실은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글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스틴은 그가 쓴 『첫 번째 변증서』 65-67장에서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서를 봉독하고, 집례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모두 일어서서 기도한 후에, 집례자에 의해서 빵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의 기도와 분별례와 헌금과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sup>11)</sup>

7). 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p. 30-32; 네메세기, 『주의 만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pp. 86.

8). J. B. Lightfoot, *op. cit.*, p. 84.

9). *Ibid.*, p. 128.

10). Everett Ferguson, *Early Christians Speak*(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p. 81.

11). *Ibid.*, pp. 81-117; 네메세기, *op. cit.*, pp. 90-91.

교회는 처음 4세기까지 신자들이 참여하는 매주일 성만찬을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3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터툴리안(Tertullian)은 그의 논문 “기도에 관해서”(On Prayer) 19장에서 말하기를, 금식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만찬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또한 동방교회의 교회법(Canon) 28조에 의하면, 성만찬을 “삼 주간을 거른 자는 파문 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341년에 열린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교회에 출석해서 봉독된 성경말씀을 듣고, 기도와 성만찬에 참여치 않는 자들은 그들의 회개가 공개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교회로부터 파문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sup>13)</sup> 400년에 열린 제 1차 토로우제 공의회(Council of Tholouse)에서도 “설교를 들은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발견되면 경고해 줄 것이요, 만일 경고를 받고도 그래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출교되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sup>14)</sup>

성만찬을 자주 받지 않는 관습은 5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미사의 계속, 개인 경건생활의 유행, 그리고 미사의 미신적인 요소의 도입 등으로 인해서 미사는 매주일 또는 매일 거행이 되었지만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성찬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진해서 신자들이 자주 성체를 받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신자들의 무관심, 엄격한 참회의 관습, 그리고 아리안니즘을 막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가 성만찬을 자주 못하게 된 이유들이다.

동방교회의 목수에스트의 주교이며 신학자였던 데오도루스

12). Henry Bettenson, trans. and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the Fathers from St. Clement of Rome to St. Athanasiu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148-149; Andrew Paris,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Lord's Supper*(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6), p. 286.

13). *Ibid.*, p. 287;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Nashville: Gospel Advocate Publishing Company, 1964 reprint), p. 287.

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혜문사, 1982), 4.17.44.

(Theodorus, 428년 사망)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는 제단과 신자석 사이의 벽을 높게 만들었고, 신자는 성만찬을 자주 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5)</sup>

서방교회는 4세기경 다마스 감독 때 예배 언어를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꾼 이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년) 때까지 이단으로부터 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사가 모국어로 집례되거나 예전집이 번역되는 것을 금하여 왔다. 이런 이유로 라틴어를 모르는 신자들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16)</sup>

이러한 풍토 속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와 결합하거나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는 대신 실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떡을 보고 경배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물질의 성체화’ 신학으로 인해서 11세기에는 떡에 대한 독특한 공경의 풍습이 도입 되었는데, 사제는 축성의 때에 종을 사용하거나 떡 앞에서 절을 하였으며, 떡을 만진 손가락을 경의의 표시로 계속 맞붙이는 관습도 이 시기에 시작되어 13세기에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sup>17)</sup>

중세교회에서 성찬을 받지 않던 풍습은 교리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성만찬의 기념적인 특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성만찬을 희생적인 면으로 치우치게 만들었고, 이 희생적인 개념에서 성만찬은 예배자를 위해서 바쳐지는 희생제이므로 예배자는 성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18)</sup> 둘째, 중세교회의 성찬을 받지 않던 풍습은 고해성사의 발달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9세기경까지는 일생에 오직 한번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의 고백을 임종의 순간에나 하고자 하였다.

15). Burkhard Neunheuser, 『문화사에 따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옮김(분도출판사, 1992), pp. 110-111.

16). *Ibid.*, p. 92-93.

17). *Ibid.*, p. 112.

18). 장자끄 폰 알멘, 『구원의 축제: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도서출판 진흥, 1993), pp. 179-80.

또 죄를 짓고나서 고해성사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만찬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만찬을 받지 못하는 대신 미사 중에 축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성찬 기도문이 “당신께 봉헌하러 모인 모든 이들을 생각하소서”에서 “모인 모든 이들을 생각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드리오며, 그들이 당신께 봉헌하나이다”로 바뀌기도 하였다.<sup>19)</sup>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서방교회는 중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신자들이 매주일 성만찬을 떴던 습관을 버리고 주일 미사에 참석하면서도 성만찬을 하지 아니하고 일년에 한 두 차례만 하게 되었다. 랑구에도크(Languedoc)에서 506년에 열린 아가타(Agatha)공의회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일년에 세 차례 즉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찬에 참여치 아니한 자들을 훌륭한 신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선포하면서 일년에 세 번의 성만찬을 기정 사실화시켰고, 1215년에 열린 라테란(Lateran)공의회는 “일년에 한번 부활절 때에 성만찬을 배령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이러한 굴절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사제들에 의해서 성만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찰스 대제(Charlemagne/768-814)는 적어도 사순절 주일만이라도 성찬을 떴는 습관을 부활시키려 하였다. 12세기 초에 나온 Ordo Officiorum Eccl. Later 문서는 “신도들은 비록 사순 시기에 매일 교회에 모이지만 그러나 매일 성찬배수 하지 않는다”(100항 37쪽) 또한 “우리 교부들은 매일 성찬배수를 권고하지만 모든 사제나 평신도들은 이것을 사순절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한편, 주일 성찬배수의 습관은 클뤼니 수도원(Cluniacs)<sup>21)</sup>이나 이후의

19). Burkhard Neunheuser, *op. cit.*, p. 92-93.

20). Andrew Paris, *op. cit.*, p. 288; Alexander Campbell, *op. cit.*, p. 288.

21). 베네딕트(Benedictine) 규율에 따라 시작된 개혁운동의 하나로서 909

시토회(Cistercians)<sup>22</sup>)에서 충실히 지켜졌고, 성직 수도자들은 주간 중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평수사들도 일년에 일곱 번 정도는 성찬을 배수하였다.<sup>23</sup> 15세기 초 토마스 아 캠프이스(Thomas à Kempis)도 ‘자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의 유익함에 대해서’와 ‘경건하게 성찬식에 참례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또 ‘경솔하게 성찬식을 빠뜨리지 말 것’에 대해서도 충고하였다.<sup>24</sup>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1643년 얀센파(Jansenist)<sup>25</sup>)였던 안토이네 아놀드(Antoine Arnauld)에 의해서 매주일 성만찬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잘못된 습관이 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교황 비오 10세 때부터다.<sup>26</sup>

교회의 잘못된 성만찬의 관습은 종교개혁가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되었으나 성만찬을 자주하지 못했던 관습만큼은 고치기를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쾰링거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가 바로 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을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만찬을 은총의 채널로 생각지도 않았고, 기독교 예배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성만찬을 주장한 루터나 칼뱅과는 달리 한 해에

---

년에 클리니(Cluny)에서 시작되었다. 성서연구, 예전갱신, 검소를 신조로 삼았다. J. D. Dougl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s.v. “Cluniacs.”

22. 로버트(Robert of Molesme)에 의해서 1098년에 시토회(Citeaux)에서 출발된 베네딕트(Benedictine) 수도회의 일종이다. 가난, 검소, 은둔적 독거(獨居)를 강조하였다. *Ibid.*, s.v. “Cistercians.”

23. Burkhard Neunheuser, *op. cit.*, p. 111.

24. Thomas à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 조향래역(예찬사, 1984), pp. 243-287.

25. 얀센(Cornelius Otto Jansen/1585-1638)과 세인트-사이랜(Saint-Cyran)의 주도하에 시작된 가톨릭의 급진적인 어거스틴 학파로서 자유의지, 예정론, 엄중한 도덕적 금욕주의, 교권, 그리고 선교 문제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예수회(Jesuits)와 크게 충돌하였다. 얀센과 사이랜이 죽자, 안토이네 아놀드(Antoine Arnauld)가 1643년에 이 운동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J. D. Douglas, *op. cit.*, s.v. “Jansenism.”

26. 네메세기, *op. cit.*, pp. 118-119.

네 번 정도로 고정시켜 버렸다.<sup>27)</sup>

여기에 반해서 요한 칼뱅(John Calvin)은 매주일 성만찬의 집례와 신자들의 참여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칼뱅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성만찬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자주 기념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sup>28)</sup> 1537년 제네바 의회에 낸 『교회와 조직에 관한 안내』에서도 매주일 성만찬 거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쾰빙글리에 강한 영향을 받은 행정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칼뱅의 건의를 무시하고 성만찬 예배를 연 4회로 제한하고 말았다.<sup>29)</sup> 이런 칼뱅의 노력은 1555년에 베른 시의 행정관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도 계속되지만 이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비록 새로운 문제는 아니나 (여러분의 주의를 상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일년에 네 번, 여러분들은 일년에 세 번밖에 거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성찬을 더 자주 거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이 매우 자주 거행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 같은 풍습은 사탄에 의해 미사라는 가증한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사탄의 꾀계에 의해 일반 회중은 겨우 일년에 한 두 번밖에 성찬을 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잘못으로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sup>30)</sup>

그러나 루터교회와 헝가리의 개혁교회는 주일 성만찬 예배를 계

27).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대한기독교서회, 1992), p. 33. 쾰빙글리는 종교개혁이전에 신자들이 일년에 한 번 정도 받던 성찬을 일년에 네 번 받도록 배려를 했고,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 주일에 미리 신자들을 교리문답 등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구원의 축제, p. 181.

2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혜문사, 1982), 4.17.43-46.

29).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 49.

30). Robert E. Webber, 『예배학』(*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생명의 말씀사, 1988), pp. 99.

속하였다. 바젤에서는 교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매주일 성찬을 받을 수 있었다. 1563년의 법령에 따르면, 라인강 서부지역에서는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하는 성만찬 말고도 매월 한 번씩 성만찬을 거행하였고, 시골에서는 격월에 한 번씩 거행하였다.<sup>31)</sup>

영국의 종교개혁가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1489-1556)는 가톨릭교회의 예배와 개척교회의 예배의 두 모형을 절충하여 1549년 영국교회를 위한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집성한 사람으로서 예배 의식을 간소화시키는 한편, 평신도는 반드시 성만찬 때에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이후 영국교회(성공회)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주교좌 성당에서는 주일 성만찬을 지속시켰고,<sup>33)</sup> 일부 교회가 일년에 네 차례 성만찬을 행하였으며, 다른 교회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행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옥스퍼드 운동’<sup>34)</sup>의 영향으로 인해서 19세기 말엽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매주일과 축일마다 성만찬을 행하였으며,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주간 중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성만찬을 행하기도 하였다.<sup>35)</sup>

31). 『구원의 축제』 pp. 182-183.

3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개정판), pp. 111-112.

33). 『구원의 축제』 p. 180.

34). 19세기 영국의 급진적 합리주의, 회의론, 무감각, 자유주의, 그리고 비도덕성에 반발하여 발생한 영국교회내의 중요한 종교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교회전통에로의 복귀와 사제와 신자들의 경건과 헌신 그리고 수준 높은 예배를 희망하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였던 요한 케블(John Keble)은 침례와 성만찬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운동은 친 가톨릭교회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요한 헨리 뉴만(John Henry Newman)을 위시하여 약 일천여명의 학자와 사제들 그리고 신자들이 가톨릭교회로 개종하였으며, 영국교회의 성만찬 예배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s.v. “Oxford Movement.”

35). Massey H. Shepherd, Jr., 『교회의 예배: 예전학』 정철범 옮김(대한기독교서회, 1991), p. 148.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은 크게 보면, (1)반예전적인 경향, (2) 말씀의 이해에 치중하는 경향, (3)체험에 치중하는 경향의 3대 조류를 따라 흘러 왔다.<sup>36)</sup>

첫째, 반 예전적인 부류는 예배의 영적인 측면 즉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여 형식과 틀을 부정한 부류로서 청교도, 초기 침례교, 회중교회, 웨이커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말씀의 이해에 치중한 부류는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성에 호소하는 부류로서 초기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부류는 경건주의, 모라비안주의, 그리고 부흥운동과 관련된 웨슬리안이 여기에 속한다.<sup>37)</sup>

개신교회들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결국 성만찬은 주일 예배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주변부 몇 사람들의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외침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킹(William King/ 1650-1729)과 뉴욕 시티의 장로교 목사 요한 미셸 메이슨(John Mitchell Mason/ 1770-1829),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John Wesley)가 있다.

윌리엄 킹은 1695년에 쓴 논문, “하나님의 예배에 인간들이 첨가한 내용에 관한 논의”(A Discourse Concerning the Inventions of Men in the Worship of God)에서 매주일 성만찬 거행을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주 성만찬 거행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적어도 매주일마다 거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한 미셸 메이슨 목사도 1798년에 북아메리카 준 개혁교회의 성도에게 쓴 그의 논문, “찾은 성만찬에 관한 서신들”(Letters on Frequent Communion)에서 매주일 성만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만찬의 의무”라는 제목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36). Robert Webber, *op. cit.*, p. 99.

37). *Ibid.*, pp. 99-107.

한 1784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나는 또한 매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거행할 것을 장로님들에게 충고합니다”라고 적고 있다.<sup>38)</sup>

이들의 외로운 외침이 교단적인 운동으로 번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였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펼치면서 침례와 성만찬의 성서적 회복에 힘썼다.

이 운동은 장로교 목회자들이었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과 발톤 스톤(Barton W. Stone)에 의해서 전개되고, 토마스 캠벨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에 의해서 꽃피운 성서의 권위회복과 교회연합운동으로서 예배에서의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의 거행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다고 믿고 지난 200여년 동안 간소화된 예식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범기독교적으로 일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먼저 가톨릭교회가 예배갱신운동을 펼쳤다. 가톨릭교회는 1962-65년에 열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예배 중에 설교와 신자의 영성체를 회복하였고, 『미사경본』의 모국어 번역이 허락 되었으며, 비로소 미사가 모국어로 집례 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가톨릭교회도 196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어 『미사경본』을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이 때부터 전격적으로 예전에 관한 각종 문헌들이 한국어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sup>39)</sup>

한편 개신교 측에서도 이 때에 리츠만(H. Lietzmann), 쿨만(O. Cullmann), 그리고 폰 알멘(J. J. von Allmen)과 같은 성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예배 연구에 대한 업적들을 쏟아 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업적이 도화선이 되어 말씀과 주의 만찬이 함께 있는 균형 있는 예배의 복원에 대해서 세계교회들이 깊은 관심

38). Andrew Paris, *op. cit.*, pp. 291-94.

39). 쯔지야 요시마사,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최석우 옮김(성바오로출판사, 1991), s.v. “부록.”

을 쏟기 시작했다. 그 열매가 1982년 1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파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침례, 성만찬, 그리고 교역에 대해서 조정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침례, 성만찬, 그리고 교역에 대해서 교파간에 상호이해와 일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리마문서』이다. 이 문서가 채택된 이후 침례 성만찬에 대한 성례전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워지고 있고, 그 의미도 선명해지고 있으며, 『리마 예식서』에 따른 성만찬 예배가 실험적으로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다.<sup>40)</sup>

성만찬 예식의 빈번도에 대해서 『리마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님의 만찬을 거행함으로써 깊어진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자주 거행되어야 한다. 신학과 예전과 실천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성만찬이 거행되는 여러 형태의 빈번도와 관련되어 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기 때문에, 적어도 매주일마다 거행해 마땅하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롭고도 성례전적인 식사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주 성만찬을 받도록 권장되어야 한다.<sup>41)</sup>

이와 같이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성만찬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었고 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예배와 성례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만찬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교회의 일치와 질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전통으로 환원하는 일이다.

40). 박 근원, *op. cit.*, pp. 10-17.

41). Faith and Order(WCC),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s.v. "Eucharist(30, 31)."

## 신학적인 측면

감사, 기념, 성령의 임재, 교제, 종말론적 식사, 이상의 다섯 단어가 『리마문서』가 설명하는 성만찬의 신학적 특징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만찬의 뿌리를 유월절 식사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유월절 식사의 특징도 기념, 찬양, 교제,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와 성만찬을 근본적으로 차이 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앞당겨 오는 성령의 임재이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시대를 메시아 시대로 만드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다.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먼저 이들 다섯 단어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첫째, 성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이다(Eucharistia). 『리마 문서』는 제 4 항에서 성만찬을 찬양의 제사(sacrifice of praise)로 정의한다. 성만찬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응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공동체였으며, 예배를 통하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관계를 새롭게 다짐하고 갱신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참예배를 거듭 재현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두었던 것처럼, 교회도 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둔다. 또한 구약시대의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응답이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예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응답이다.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고하여,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sup>42)</sup>

42).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은곡 김소영박사 회갑기념』

둘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다(Anamnesis).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 성만찬은 하나님과 인간사이 또 인간과 인간사이에 가로놓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약 성립의 매개물로서 희생된 어린양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전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한다. 성만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의 몸예 동참하는 기념행위이다. 기념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의 나의 삶속에 현재화하며,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속에 앞당겨 온다.

셋째, 성만찬은 성령의 임재를 비는 제사이다(Epiklesis). 『리마 문서』는 교회 전통과 칼뱅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이 성령의 중요성을 말한다. “성령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교회는 새 창조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기 때문이다”(18항). 우리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속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체험한다.

넷째, 성만찬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교제의 시간이다(Koinonia). 성만찬은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물(對物)관계에서 예배와 친교와 관리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된 화해와 나눔의 시간이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와의 친교에 참여한다. 식음의 행위는 친교의 행위이다. 신의(神意)가 깃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신앙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이다(Anticipation).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

의 잔치이다. 『리마문서』는 제 22 항에서 “성만찬은 창조물의 궁극적인 갱신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앞당김은 막연히 앉아서 기다려 얻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석할 때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하는 소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소명을 받아”(24항)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25항).

이와 같이 성만찬은 기독교 예배를 감사제, 기념제, 기원제, 화목제, 종말론적인 축제로 만든다. 성만찬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의미를 예배에 담기가 어렵다. 피상적이고 말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과하지 아니하며,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밖에도 성만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첫째,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됨을 체험한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터득한다.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된 삶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과 참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 또 인간 구원의 문제는 관계성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인간끼리의 관계회복, 자연과의 관계회복은 오직 십자가의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침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단회(單回)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성만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필수조건인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된다. 이 연대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성육신하심으로써 자기를 포기(renunciation)하셨고, 인간들과 동일화(identification)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그는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과 세리 또는 창녀들과도 함께 밥상공동체를 이루시며,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셨고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을 보여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 정신을 본받도록 성만찬을 행하여 지킬 것을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침례를 수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대하는 결속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sup>43)</sup> 또는 하나님과 화목(연대)하는 일회적 의식으로 본다면, 성만찬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즉 화해와 나눔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인간끼리의 공동체의식을 넓혀 가며, 자연과도 연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신앙이 없이는 성찬을 받지 못한다. 성만찬은 침례를 받고 구원에 동참한 자가 복음의 진수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고 있는지를 저울질할 수 있는 시험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만찬은 신앙의 신비를 선포한다.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찬을 받는 자의 신앙의 힘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넷째, 성만찬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선 일종의 신비이다. 이 신비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성(聖)과 속(俗) 곧 교회와 세상을 구별한다. 이 엄격한 구별이 교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이 세상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만찬은 교회를 준비시켜 세상에 봉사하게 한다.<sup>44)</sup>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결단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화목하게 하는

43). 김용복, “민중과 연대하는 교회-새로운 교회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68집(1990년 봄호), 183-210쪽.

44). 『구원의 축제』 pp. 187-189.

직책을 부여받았음을 상기한다.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요 6: 51)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만일에 교회가 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부탁하신 성례를 멸시하는 것이다.<sup>45)</sup> 또한 그것은 침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sup>46)</sup> 성만찬은 침례를 받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응하여 살아가도록 권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침례와 성만찬의 관계를 칭의와 성화에 대비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설교와 성만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선취적인 기능을 갖는다. 설교의 현재성과 성만찬의 미래성은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현재종말과 미래종말의 긴장관계와 같다. 이 때문에 설교가 없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느 것도 거기서 끌어내릴 수 없는 영광의 보좌 속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도록 하고,” 설교만 있고, “성만찬 없는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아직 주님의 기도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회는 아직도 어둠 속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도록 한다.”<sup>47)</sup>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출범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다.

## 한국 개신교의 성만찬 예배 이해와 실제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베푼 후에도 10년이 넘도록 성만찬을

45). 『구원의 축제』 p. 189.

46). 『예배학 원론』 p. 159.

47). 『구원의 축제』 pp. 186-187.

거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sup>48)</sup> 초기 한국 개신교 예배는 청교도들의 후에였던 선교사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청교도들의 특징은 예전이 없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은혜의 체험과 경건을 중시하는 주정주의였던 것이다. 본래 청교도들은 영국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에 국교인 성공회에 반발한 분리주의자들로써 영국교회가 가톨릭의 미사예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개탄하였다. 이에 청교도들은 전통적인 예배 예전을 버리고 예배를 간소화시켰으며, 교회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성서를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삼았고, 은혜의 체험과 경건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드린 주일예배는 성례전이 빠진 전도집회요, 부흥집회였다. 이러한 신앙노선을 전수 받은 한국의 개신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하면서 말세론과 기복신앙에 편승하여 예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9)</sup>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적적인 수적 성장을 이룩하긴 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큰 과오를 범하고 말았고, 인간 공동체에 전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에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차고 넘쳤지만, 예전의 내용과 형태가 빈약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단지 ‘교회를 가는 자’(church-goer) 또는 ‘설교를 듣는 자’(sermon-hearer)로 전락되고 말았다. 설교 중심의 개신교 예배의 병폐는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에다 목회의 성패를 걸게 만들었고,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다는 은혜와 은사 체험에다 교회 출입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sup>50)</sup>

48). 한국신학연구소, “심포지엄: 리마문서와 오늘의 성만찬,” 『신학사상』 68집(1990년 봄호), pp. 212-213.

49). 정용섭. *op. cit.*, pp. 128-131.

50). 정장복, “한국교회의 예배, 예전형태 백년,” 『기독교 사상』 제 29권

한국 개신교의 설교 중심의 예배와 성례전의 결여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연중 3, 4회의 성만찬 예배가 모든 개신교들의 오랜 전통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 이런 잘못된 신앙의 전통이 말씀과 나만을 연결시켜 나가는 개인주의 신자들을 양산하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행동적 신앙의 결여를 초래하였다. 성만찬이 배제된 오늘날 한국 개신교 예배는 듣는 예배뿐이며, 보는 예배가 없고, 예수의 갈릴리 사역뿐이며, 예루살렘에서의 수난의 사역이 없고, 뜨거움만 있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표현인 적당한 예전이 없는 매우 불균형적인 예배로 상실된 것이다. 하루속히 한국 개신교는 기도회나 은혜 집회의 형태에서 벗어나 바른 예배, 온전한 형태의 예배로 환원되어야 한다.<sup>51)</sup>

대전직할시와 인근지방에서 목회 하시는 80명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만찬에 관한 수용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다.<sup>52)</sup> 설문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의 94%가 신학교육이나 세미나 혹은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84%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이나 세미나 혹은 책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예배에서의 성만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매주일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은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이 함께 진행되는 균형 잡힌 예배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는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었다. 한 달에 한번 성만찬 예배를 거행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전히 연 2회에서 4회에 걸쳐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연 4회 또는 한 달

제 12호(1984년 12월호), 65-66.

51). *Ibid.*, pp. 71-73.

52). 대상자는 분파에 구분없이 장로교 20명, 감리교 20명, 성결교 20명, 그리스도의 교회 20명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설문내용과 실태분석표를 실지 못했다.

에 한번의 성만찬 예배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예배갱신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성만찬 예배를 거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적으로는 순복음교회가 한 달에 한번씩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성만찬을 자주 행하지 못하면서도 현재의 성만찬 예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만찬 명상문의 개발을, 그리고 타교단의 목회자들은 기도문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만찬을 자주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자주 하지 않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기 때문이며, 자주 행하였을 때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습관화되어 형식에 치우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목회자들은 개신교 예배의 특징을 성령의 감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성에 두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개신교 예배에서 예식의 간소함과 성만찬을 자주 거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답하였다.

목회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식서에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족한 예문의 수와 빈약한 내용에서 찾았다. 그리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예식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만족할만한 예식서가 있다면, 교단에 관계없이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은 여전히 갖은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 예배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의 이런 인식의 결과는 성만찬을 자주 행하지 않던 오랜 개신교 예배 전통과 예배신학의 부재와 성장위주의 물량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신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목회자들의 예배갱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만이 오늘의 개신교 예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끝맺는 말

이상으로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말씀과 성만찬은 바늘과 실의 관계요, 출발점과 끝인점의 관계이다. 어느 것도 예배에서 삭제되거나 생략될 수 없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실없는 바늘과 같고, 끝인하지 아니한 달리기 선수와 같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는 예배와 같다. 주일의 의미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교회가 출범한 날이요, 첫 예배가 드려진 날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과 부활하심에 대한 축제와 성령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재림에 대한 기원과 성도의 친교와 관련된 것이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진정 성만찬이 있는 예배이다. 성만찬은 예배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환원되어야 한다.

말씀의 선포와 주의 만찬이 매 주일 드리는 기독교 예배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이 성서적인 증언과 교회 전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회 창립 이후, 이 전통이 4세기 말까지 큰 변화없이 계속 되었음을 이 시대의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다.

예배에 문화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첨가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합법 종교로 인정되면서부터 였다. 그레고리 대제 때만 해도 신자들의 기도와 설교가 예배 의식에 남아 있었으나, 중세 이후 예배는 화체설의 영향으로 점차 미신화 되었고, 성도의 진정한 참여가 없는 연출미사로 전락되면서 말씀 선포, 성경봉독, 신자들의 기도와 같은 듣는 예배의 성격이 사라지고 말았다. 또 예배자들의 일상 언어와 지역에 관계없이 집전되는 라틴어 미사, 개인 경건생활의 유행, 엄격한 참회의 관습, 떡과 잔에 대한 공경,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지나친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로 인해서 미사는 매주일 또는 매일 거행이 되었지만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성찬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결코 성서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

하게 드러났다. 중세 초기의 예배가 지나치게 예전적으로 흘러간 것은 이단을 막고, 정통신학을 보수하고, 라틴어 미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연출미사로 이해시키려 한 때문이었지, 결코 본래의 예전 형태는 아니었다. 성체신학이 일찍부터 발전하게 된 원인도 영지주의 때문이었고, 봉헌신학의 발전의 원인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제사문화 때문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성만찬을 무용하게 보았고, 희생제사를 바치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없는 기독교 예배를 무신론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중세 교회의 예배 전통을 고쳐서 사도들의 예배 전통으로 환원하려 했던 종교개혁가들은 예배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삭제시키는 한편, 모국어 예배와 회중찬송을 도입하였고, 화체설, 봉헌설, 병존설에 반대하였다. 그 대신에 공존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사도들의 전통인 설교와 성만찬의 이중 구조의 예배를 완전히 환원시키지 못하고 중세교회의 보는 예배를 말씀 중심의 듣는 예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개혁교회의 신자들이 가톨릭신자들 보다는 실제로 더 자주 성찬을 받기는 했지만, 일년에 네 차례로 고정시켜버린 쾰빙글리의 예배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잘못된 예배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전통이 결코 본래의 예배 전통은 아니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은 분명히 말씀과 성만찬이 늘 함께 있어 왔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예배나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온전치 못한 예배이다.

예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이 있을 때에 산 제사가 된다. 설교만으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성육화의 길을 체험할 수 없다. 설교는 영적이고, 성만찬은 육적이다.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의 조화이다.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관계, 곧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다. 설교가 말로써 이루어진다면, 성만찬은 행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설교가 청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다면, 성만찬은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에 호소한다. 설교가 세상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성만찬은 교회를 준비시켜 세상에 봉사하게 한다. 그러므로 설교나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이다.

반 예전적인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 개신교는 말세론과 기복신앙에 편승하여 예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연중 3, 4회의 성만찬 예배가 개신교의 예배 전통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배갱신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많은 목회자들이 매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서적으로 보았고, 설교와 성만찬이 함께 있는 예배를 원형적인 예배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는 교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밖에는 없었고, 순복음 교단이 한 달에 한번씩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연 2회에서 4회에 걸쳐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관행으로 삼고 있지만, 연 4회 또는 한 달에 한번의 성만찬 예배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달에 한번씩 성만찬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저녁 집회 때에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도 다수 있다. 이런 경향은 교단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새로 나온 예식서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성만찬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 데, 각 교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주 성만찬 예배를 권장하고 나서야 하며, 예식서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결코 지나치게 예전적이지도 그렇다고 반예전적이지도 않았다.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도들이 회당예배와 성전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고, 예배 자체가 이 두 전통의 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예전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만찬은 역사적 사건으로써 성전예배와 관련하여 예배 때마다 반복되었고, 설교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말씀으로써 회당예배와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예배를 단순히 기도하고 찬

송하고 설교 듣는 기도회 모임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되겠고, 사건에 대한 해설이 없고, 신자의 진정한 참여가 없는 제사 모임으로 생각해서도 안되겠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진정 성만찬이 있는 예배이다. 성만찬은 예배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환원되어야 한다.

## 참고서적

- 김용복. “민중과 연대하는 교회-새로운 교회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68집(1990년 봄호), 183-210.
-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은곡 김소영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교회의 예배와 선교의 일치』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이장식. “예배와 성찬의식.” 『기독교사상』 제 23권 제 2호(1979년 2월호), 63-72.
-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신학적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제 22권 12호(1978년 12월호), 128-140.
- 정장복. “한국교회의 예배, 예전형태 백년.” 『기독교 사상』 제 29권 제 12호(1984년 12월호), 65-77.
- 김득중. 『복음서 신학』 컨콜디아사, 1985.
- 박근원 편저. 『리마예식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 『오늘의 예배론』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은곡 김소영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출판위원회 편. 『교회의 예배와 선교의 일치』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정용섭. 『교회개신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Allmen, Jean-Jacques von. *The Lord's Supper*. London: Lutterwort Press, 1969. 박근원 역. 『성만찬 연구: 주의 만찬』 도서출판 양서각, 1986.
- .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박근원, 김소영, 허경삼 공역. 『예배학원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 『구원의 축제: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 도서출판 진흥, 1993.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 혜문사, 1982.
- 네메세기. 『주의 만찬』 김영환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 Neunheuser, Burkhard. 『문화사에 따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역. 분도출판사, 1992.
- Shepherd, Massey H., Jr. *The Worship of the Church*. 정철범 옮김. 『교회의 예배: 예전학』 대한기독교서회, 1991.
- Thomas à Kempis. *The Imitation of Christ*. 조항래 옮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찬사, 1984.

-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예배학』 생명의 말씀사, 1988.
- 쯔쯔야 요시마사.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최석우 역. 성바오로출판사, 1991.
- Bettenson, Henry, trans. and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the Fathers from St. Clement of Rome to St. Athanasiu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Calvin, John. *Institutes to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 Campbell, Alexander. *The Christian System*. Nashville: Gospel Advocate Publishing Company, 1964. Reprint.
- Douglas, J. D.,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 Elwell, Walter A.,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s Speak*.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Baker Book House, 1986.
- Paris, Andrew.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Lord's Supper*.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6.
- Reid, J. K. S.,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CC, 1982.